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83.17	↑ 코스닥	749.28
	(+3.46)		(+4.10)
↓ 금리	2.631	↓ 환율	1449.05
	(-0.020)		(-4.35)



수익률 제자리, 수수료는 2배 ↑... 운용사만 배 불렀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20년

수익률 年2.3%... 물가 못 따라가 운용기관 수익 6년 새 90% 늘어 원리금 비보장형도 저조한 성과 기금형 도입·수수료 개편 시급



크게 오른 가공식품 물가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시리얼 상품이 진열돼 있다. 식품업체들이 상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오징어채(22.9%, 맞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등이 크게 올랐다.

/뉴시스

428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 정착으로 적립액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기관이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크게 늘어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수수료 체계도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보험사 16곳·은행 12곳·증권사 14곳)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1조6841억원(DB형·DC형·개인형 IRP 합산) 규모다. 지난 2018년 기록했던 8861억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3년간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은 연 2.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인 연 3.7%를 1.4%포인트(p) 밑돌았다. 기간을 10년 까지 늘려도 수익률은 연 2.4%에 머물렀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존 퇴직

금 제도 대신해 도입됐다. 사업체 부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 적립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해지가 잦아, 본래 취지인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주요 노후 소득원'이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 및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IRP로 나뉜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지만,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투자 방식을 선택한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부터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비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운용기관들은 낮은 수익률 원인으로 88%에 달하는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42개 운용기관이 판매한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3년 수익률 평균도 연 1.4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비보장형 상품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전체 적립금의 일부를 떼가고, 운용 성과 일부분을 추가로 떼가는 형태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적립금의 0~0.1% 수준이지만,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은 수수료가 최대 1%에 육박한다.

성과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각 운용기관이 수익률보다는 고객 확보에만 급급하게 되는 구조다. 특히 비보장형 상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수수료를 때 손실액을 늘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 사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관 간 상품 이동을 허용하는 '퇴직연금 갈아타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품 이동에 제약이 많고,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3500개사 법인 코인 거래 허용

거래소, 상반기부터 현금화 가능

앞으로는 기관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은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체납 재산 등의 이유로 몰수해 대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 계좌(법인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 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한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총 3500여 개사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 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 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

'두번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원조 삼성, 기술로 승부

올 상반기 '갤럭시S25' 엣지 공개 하반기엔 Z폴드7·Z플립7 시리즈 이르면 연내 두번접는 제품도 출시



(왼쪽부터) 갤럭시 S25 엣지, 갤럭시 S24 울트라 모형, 갤럭시 S23 울트라 모형.

삼성전자가 올해 차세대 스마트폰과 IT기기를 대거 출시한다. 올 상반기 가장 얇은 휴대폰으로 알려진 '갤럭시S25 엣지'를 공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시리즈를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빠르면 연내 화면을 두접는 '트리폴드(Trifold)' 스마트폰 등 새로운 폼팩터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5가 역대급 판매를 기록한 만큼 올해 모바일 사업(MX부문)으로 실적 상승을 도모하겠

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확장현실(XR) 기기 '갤럭시 XR'도 공개하며 IT시장의 주도권

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가장 얇은 폰부터 갤럭시 폴드7 출시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슬림 모델인 '갤럭시S25 엣지'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엣지 모델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갤럭시 S25 엣지 모델의 시제품 견본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유명 IT 팁스터(정보유출자)와 IT 전문매체는 오는 4월 또는 5월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S25 시리즈의 강화된 기능과 얇은 두께를 갖춘 모델이 애플 보다 빨리 출시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엣지의 두께가 기존 예상보다 더 얇은 5mm대로 삼성 스마트폰 중 가장 얇은 휴대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을 갖춘 LTPO 디스플레이 ▲최대 화면 밝기 2600니트 등을 갖춘 전망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 시리즈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서는 폴드7을 두고 화면 주름이 거의 사라지는 수준으로 디스플레이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한 빛을 쬐 때만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ja_tea@

메트로 한줄뉴스



▲전두환 비석 밟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사진 뉴시스
▲최상목 대행,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 "기술강국 이끌어주길"

▲輿論리위 "윤 대통령 징계 절차, 이전 위원회에서 종결... 관여 안 할 것"
▲여 '쇄신 세미나' 참석한 김형오 "국힘 투쟁력 부족... 탄핵심판에 당당해야"

▲'목사방' 등 성착취방에 여가차관 "추경 시 디성센터 강화할 것"
▲윤 탄핵, '인용' 58% '기각' 38%... 현재 탄핵 심판 '신뢰' 54% '불신' 41%

사흘간 주가 39% ‘쑥’... 뚝뚝한 자회사 둔 기업 ‘함박웃음’

(한화)

한화 한화에어로·솔루션·비전 지분가치 급증에 깜짝실적 시현 목표가 4.3만원→5.2만원 올라

LS 올해들어 주가 36%나 급등 LS전선 수주잔고 증가 등 반영

한진칼 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대한항공의 재무안정성 등 영향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특별한 공시가 없었는데 주가가 사흘간 39%나 올랐네요.” (한화그룹 관계자)

13일 서울 증시에서 한화그룹 지주회사적인 한화는 11.80% 오른 4만2150원에 마감하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한화의 올해 주가 수익률도 56.69%를 기록했다. SK, LG 등 10대 상장 지주사 가운데 상승률 1위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화가 보유 중인 3개 상장 자회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비전)의 지

분 가치는 최근 급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는 지난해 4분기 매출 약 18조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시현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 등 연결자회사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별도 부문에서도 건설 부문 실적이 일회성 이익 반영

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반영한 목표 주가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20%가량 올려잡았다.

뚝뚝 자회사를 둔 대기업 지주사나 어머니 기업들이 웃고 있다. 지주사들이 보유한 자회사에는 미래 성장성이 밝은 빅테크, 친환경, 수소차, 전기차, 바이오, 자율주행 등 대표 주자들이 많은데 최근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자회사 덕에 신용등급이 오른 곳도 있다.

◆**효자 자회사 덕에 ‘웃는’ 기업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는 올해 주가가 36% 넘게 올랐다. 잘 짜인 자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이다. LS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었다. 영업이익은 2966억원으로 93.0% 증가했다. 시장기대치 보다 40% 가량 웃돈다. NH투자증권은 LS의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증권사 김동양 연구원은 “LS는 자회사 LS전선의 수주잔고 증가와 해저케이블 설비 미국 증설 계

획을 발표했다”며 “2023년부터 가운전선,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자회사 지분 확대를 통해 전력선 밸류 체인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진칼은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됐다. 자회사 대한항공의 재무 안정성 덕분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9월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000억원, 영업이익률 12.3%를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매출의 84%를 견인할 만큼 그룹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한항공배당 정책 및 자회사 실적 개선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한진칼의 배당 여력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명암 엇갈리는 지주사**

모든 지주사나 모기업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 아니다. 신성장 사업을 펼치며 미래를 일궈가는 지주사들은 주가에 날개가 달렸지만, 실적 악화를 겪는 지주사들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LG, 롯데지주, 포스코홀딩스, CJ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증권은 LG의 목표 주가를 9만

5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낮췄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LG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다”며 “연결 자회사인 LG CNS와 디앤오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화학 실적 부진으로 지분법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LG의 매출액은 1조8000억원, 영업손실은 2272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지주도 올상이다. 흥국증권은 롯데지주의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낮췄다. 롯데케미칼 등 자회사 지분가치 하락 때문이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그룹 전반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투자 집행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만큼, 지주사 중에서도 신성장 사업이나 배당 확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서 계속

‘카드+모바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내달 첫 선

중기부, 당초 계획보다 두달 밀려 내일부터 28일까지 기존앱 사용불가 신규앱에 자동충전 기능 도입 예정

오는 3월 1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이 하나로 합쳐진다.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두달 밀렸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통합 앱에서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통합 앱 출시 준비로 이달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기존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설 이벤트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규 통합 앱에는 상품권 충전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렇게하면 가맹점에서 사려는 물품 가격이 충전한 금액보다 클 때 상품권이 아닌 카드 신용구매로 결제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앱에는 가맹점 검색 후 네비게이션 길 찾기 기능,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사도 우리카드를 추가, 총 9곳으로 늘었다.

김 차관은 “통합 앱에는 결제금액에 대한 음성안내, 매출 내역 및 정산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가맹점주가 디지털상품권 사용시 불편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콜센터 등을 운영해 가맹 상인

들이 보다 쉽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골목형상점가를 누적 600곳까지 확대 사용처를 늘리고 이를 위해 지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했던 모바일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통합 앱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을 맡았다. 조폐공사는 당초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출범 시기가 2개월 밀렸다.

김 차관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온누리상품권 앱 통합 시기가 미뤄져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출범 시기가 지연에 대해 운영자인 조폐공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모바일 사업자였던 비즈플레이의 문제 제기도 불거졌다. 고객 데이터 이관 문제, 공공기관의 시장 진출,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관련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고 자격 요건 등 정당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면서 “제안요청서(RFP)에서 하도급은 불허하고 있는 만큼 공사의 기술력, 인력 등으로 자체 해결했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일부는 하도급을 썼다”며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에 대해 KT로부터는 실시간에 가깝게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즈플레이로부터는 지난해 말까지 데이터는 이관이 끝났고 나머지 1~2월 데이터는 오는 20일까지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2년 누적 수익률 12.8% 기금형 도입목소리 커져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야”

금융당국의 수익률 제고 방안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기금형과 계약형을 구분된다.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022년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30인 이하 사업장) 외에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운영된다. 계약형은 가입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한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은 12.8% 수준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2.35%)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누적 수입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익률도 7%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적립액을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투자 활성화 측면과 2%대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초 내지는 상반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나라살림 적자 80조... 2년전 보다 67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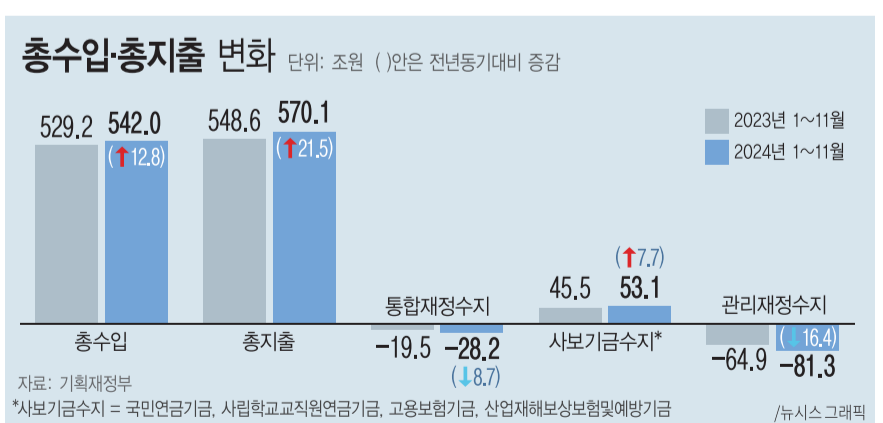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작년 11월 누적 총수입 542조 집계 통합재정수지 28.2조 적자 기록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탓에 지난해 1~11월 기간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67조 원 넘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누계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8조7000억 원 증가한 54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21조5000억 원 증가한 570조 1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조 1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살림 적자가 80조 원을 넘긴 것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국제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 원 줄었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와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에 따라 2023년에 비해 무려 17조 9000억 원 더 걸렸다. 또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소득세 중심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힘입어 8조5000억 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를 조정으로 교통세는 5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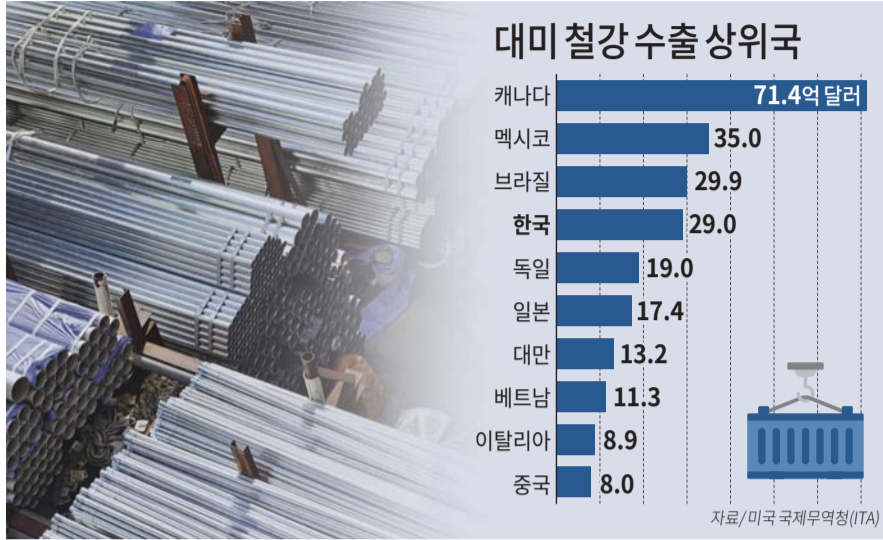
美 철강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韓기업 단기 수혜 전망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1기 당시 단기적 가격상승 효과
“정부·기업, 장기적 대응 필요”

예상보다 강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방침에 국내 철강사들의 썬병이 복잡해졌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미국 내 수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런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을 포함한 각국을 대상으로 한 일괄 관세 및 보편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미국 경제에 영향이 적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향후 협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백악관은 관세 조치 홍보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미국 현지 공장 검토를 언급하며 관세 효과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에 전기로 사업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사들은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규제가 심화

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거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향 수출 제품의 가격 상승이 국내 철강사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내 철강사가 동물이 70% 중반에서 80% 초반까지 상승했다. 특히 무역규제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에는 미국 내수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시 국내 철강사들도 수출 가격 상승 효과를 누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향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올라 국내 철강사들이 짧게나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철강에

대한 25% 관세와 더불어 30일 유예된 25% 일괄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총 50%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기존 대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중국과 일본 산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두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공세로 펼치는 수입산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내수 시장에서라도 가격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미국향 수출 제품에 이익일 수는 있으나 터키 등 지리적으로 수출이 유리한 국가들도 있어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며 “이번 관세 조치는 기업 차원의 대응보다 국가 단위의 대미 협상력이 중요한 사안이기엔 정부가 적극 대응해 기업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IT·게임업계, ‘주 52시간 예외’ 반대... “건강한 노동환경 만들어 가야”

업계, 공동요구안 도입 입장

“장기적 발전에 도움 되지 않아”

IT·게임업계 노조가 정치권에서는 논의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동요구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화성식품노조 IT 위원회는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하는 것”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인적 토대를 취약화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IT위원회는 각 기업이 진행 중



IT·게임업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2025년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게임기자단

인 노사 임금·단체교섭 관련 공동요구안을 최초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공동요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배치

절차 개선 ▲분사·인수·합병 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 등이다.

공동요구안은 IT·게임업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섭 화성식품노조 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화성식품노조IT위원회

신한섭 화성식품노조 위원장은 “화성식품노조의 활동으로 IT·게임업계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포괄임금제가 퇴출됐다”며 “앞으로 IT·게임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고용 불안, 불공정한 평가 등의 문

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윤 IT위원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조사 판단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인 만큼, 조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IT업계는 프로젝트 개편에 따른 전환배치나 분사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자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위원회는 2025년에 열리는 각 회사의 임단협 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공동요구안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가 산별노조로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HD한국조선해양, SMR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 공개

(소형모듈원전)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모델 개발”

HD한국조선해양이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하고 무탄소 시대를 앞당긴다.

HD한국조선해양은 12일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선급(ABS)으로부터 SMR 기술을 적용한 1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공개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은



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5000 TEU급 SMR 추진 컨테이너선의 조감도.

실제 기자재와 안전설계 개념까지 반영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큰 부피를 차지하던 기존 기관실 기자재 공간에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인리스강과 경수(냉각재)를 사용한 이중탱크 방식의 해양 방사선 차폐 시스템도 적용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 휴즈와 공동으로 개발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반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증기 기반 추진 시스템 대비 열효율을 약 5%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다.

HD한국조선해양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미래기술시험센터에 해상 원자력 실증설비를 구축해 안전설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민 그린에너지연구개발 상무(부문장)은 “국제 규정 마련을 위해 주요 선급뿐 아니라 국제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육상용 SMR(소형모듈원전) 원자로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XR 기기 상용화 박차... 3분기 헤드셋 출시

>> 1면 ‘두번 접는 스마트폰...’서 계속

◆ 트리폴드폰, 유럽 특허 등록...XR 헤드셋 상표권 출원

가장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빠르면 연내 두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 기대감이다. 두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리폴드폰의 명칭은 ‘갤럭시G 폴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갤럭시 폴더블7시리즈 등을 하반기에 내놓는 만큼 연초 스포셜 에디션으로 출시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IT팁스터는 “갤럭시G폴드의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가 최근 유럽에 등록됐다”며 “2024년을 시작으로 최근 3개월 동안 3년 폴드 관련 특허 공개가 집중되고 있어 실제 제품 출시는 2026년으로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갤럭시G폴드의 디스플레이 너비는 9.96인치, 높이는 6.54인치다. 무게는 약 298g으로 역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25 울트라(218g)보다 80g 무거운 수치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올 3분기 확장 현실(XR) 기기인 헤드셋을 출시한다.

이날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XR’ 상표권을 출원하며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나섰다. 통상 상표 출원은 XR기기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번 XR 기기는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글의 기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XR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요즘 트렌드는 ‘플로깅’... ‘업사이클’ 제품으로 발 맞춘다

〈조깅·산책하며 쓰레기 줍는 행위〉

기후위기가 만든 새로운 흐름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주변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환경을 챙기는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조깅 혹은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과 프리다이빙을 즐기며 수중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의류를 선보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 ‘업사이클’ 제품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다.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앞세운 브랜드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100% 재활용 소재를 택하고 있으며, 생산 방식 또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고품질의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기성 아웃도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출도 증가했다.

F&F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제주 해안가에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티셔츠를 출시



제주 이호테우해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는 글래드 호텔, 르무통 임직원 모습



/글래드호텔

파타고니아 100% 재활용 소재 생산서 탄소배출량 최소화 노력

디스커버리 해안 폐플라스틱 원료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티셔츠 출시

르캐시미어 동물 친화적 생산 레코드 폐작업복 재탄생 시켜

아모레퍼시픽·아로마티카 공병 재활용 환경 캠페인 지속

했다. 티셔츠 제작에 사용된 폐플라스틱은 총 2t으로 자원이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고 의류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또 의류 재고를 소각하지 않고 리사이클 가루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르캐시미어’는 지난해 봄·여름 컬렉션부터 지속가능한 소재를 확대 적용했다. 르캐시미어는 2014년 론칭 이후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빠진 염소털을 수거해 캐시미어 원사를 만드는 동물 친화



아로마티카 제로스테이션에서 환경 교육 및 리필스테이션 체험 중인 고객의 모습. /아로마티카

적 생산 공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브랜드 ‘레코드’에서는 KT와 손잡고, 폐작업복을카드지갑·슬리퍼·키링·티셔츠 등으로 재탄생 시키기도 했다.

용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뷰티 기업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부터 화장품 용기 등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백화점, 마트, 아리따움 등의 매장에서 수거한 공병은 총 2473t에 달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절감, 재활

용성 향상, 용기 재이용 및 회수를 통한 플라스틱 순환도 추진 중이다.

아로마티카는 2021년부터 ‘용기 재사용’과 ‘용기 재활용’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다. 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리필팩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제로웨이스트숍과 호텔, 리조트에 대용량 벌크 제품을 공급하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 누적 플라스틱 약 38t을 감축했다. 또 리필 파우치를 별도로 판매하며 대대적으로 리필 화장품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르캐시미어가 23F/W 시즌 테마 ‘순환’을 의미하는 브랜드 심볼을 재해석한 캠페인 화보를 공개했다. /코오롱FnC

MZ 소비자들이 단순 가격을 넘어 기업의 철학 등을 최종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보니, 친환경 브랜드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 기후 현상과 환경 문제가 부각될수록 소비자들은 기후 감수성에 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친환경을 위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고비용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고양시 공고 제2025-347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358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하기 위해, 「도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열람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바랍니다.

2025. 2. 11.
고양시 장

- 가. 도로의 명칭** :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
- 나. 사업위치**
 - 시 점 :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203번지
 - 종 점 :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58-19번지
- 다. 사업규모**
 - 연장 5.64km, 폭 20.0 ~ 25.0m(신설구간 : 왕복 4차로, 확장구간 : 왕복 4~6차로, 터널 2개소(1,706m), 교량 7개소(310m)
- 라. 도로구역(변경)결정 사유** : 지방도358호선 도로개설
- 마. 사업시행자** : 고양시장(비관리청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바.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3년 12월
- 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도 의정부시 신단로76번길 116), 고양시청 도로정책과(고양시청 제2별관 1층)
 - 열람기간 : 2025. 2. 13. ~ 2025. 2. 28.
-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02-6908-9037) 및 고양시 도로정책과(☎031-8075-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협받는 밥상물가... 스마트팜으로 안정공급 나서

농심 2018년 스마트팜 사업 초석 다져
CJ제일제당 자체 수직농장 솔루션
신세계푸드 스마트팜 농산물 전량 납품
풀무원 군산에 ‘육상 김 R&D 센터’ 조성

기후위기가 밥상을 위협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기후위기에 따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에서는 제철 식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먹거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커피와 코코아 가격 급등은 커피 프랜차이즈와 제과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아라비카 원두의 선물가격은 11일 기준 톤(t)당 9458.84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인스턴트나 저가 커피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커피 로부스타 가격은 t당 5653달러로 연초보다 10.4% 오른 수준이다.

코코아도 지난 수년간 t당 2000달러 수준이었다가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커피 프랜차이즈들과 롯데웰푸드와 해태제과 등 제과 기

업은 가격을 올렸다. 원두와 코코아는 이상 기후로 작황이 문제됐던 만큼 예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기업들은 기후 변화에 관계 없이 일정한 생산량을 보장하는 스마트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농업 시스템을 말한다. 농작물 재배 환경을 통제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심은 지난 2018년 사내 스타트업을 결성해 스마트팜 사업 초석을 다졌다. 당시 60평 규모 특수작물 연구를 위한 재배시설과 200평의 양산형 모델 스마트팜을 신설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하는 첫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CJ제일제당도 전 세계 농작물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등 스마트팜 수요가 늘자 사업화 추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디지털 팜CIC를 신설하고 스마트팜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현재 자체 수직농장 솔루션 등 관련 기술을 확보했으며 추가 기술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과 손잡

고 ‘동부권 임대형 수직형 스마트팜’의 민관 협력상생 모델 구축에 나서는 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발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신세계푸드는 2021년부터 농가에 스마트팜 설비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이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전량 납품받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버거에 활용되는 토마토가 대부분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된 것이다.

식물업계는 노지 작물 외에 김 육상 양식에도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김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후 변화로 생산량은 감소해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육상 양식은 생산 효율성이 해상 양식 대비 높은 데다 해수는 상승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풀무원은 지난해 전북도와 군산시, 개발금 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향후 5년간 60억원을 투자해 ‘육상 김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착공해 육상양식 물김 연구와 마른 김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그대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퇴직 준비에도 연말정산 준비에도 선물 같은 NH농협은행 IRP

개인형IRP 연금등록계좌 수수료 전면 면제로
55세 이후 퇴직연금에 확신을 더하다



확신의 55+

개인형IRP 연금등록계좌 수수료 전면 면제



[퇴직연금 상품 유의사항] •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2015년 12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개인형IRP 계좌를 1개로 제한하는 1사계좌가 적용됨에 따라 농협은행에 개인형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대하여 당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실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2.10]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가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 (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퇴직연금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6290 [2024.12.10~2025.12.10]

與 “반도체 특별법 통과 절실” vs 野 “추경 편성 시급”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與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확보 필요 보상·합의하에 52시간 적용 예외”
野 “대통령실만 추경예산안 반대”
崔 “국정협의회서 기본원칙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 /뉴시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등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

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밀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

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

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지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독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지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짜구였다. 천재 짜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짜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짜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 AI 반도체 5조 투입”

민생회복 24조, 경제성장 11조 편성
“항목 모두 관철돼야 하는 것이나 유연하게 임할 것… 與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허영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뉜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

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비명계 끌어안기… 통합행보 본격화

김경수 이어 임종석·김부겸 만남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인사를 차례로 만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내놓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관련 징역형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탈당했으나, 최근 다시 복당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과 포용력 발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에 대해 “현정 수호세력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

기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만남 이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분들의 역할도 찾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與野,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사건 발생 원인·방지책 물을 방침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함께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해낼 수 있었죠


브라보!
역대 최고의 도약을
선보인 차준환 선수

단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수 천, 수만 번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뛰어오른 것을 알기에
국민도 함께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그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KB와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st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함께합니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KB금융그룹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새 1.5억 켑충, 매물도 거둔다

갭투자 수요 유입, 집값 상승 압력 매도자들 호가 올리고 매물 거둬 장기적 영향, 거래량이 변수 될 듯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구청 허가 없이 주택 거래가 가능해졌다.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압구정·여의도·복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규제가 유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과 다른 정책 결정에 따른 시장 혼선도 예상된다.

13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발표로 '잠삼대청'에서는 매수 문의 증가와 급매물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은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잠실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해제 발표 직후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등 급매물이 줄고 있다"며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최근 28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초 27억 원대였던 가격 대비 약 1억 5000만원 상승했다.

토허제 해제로 강남권에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B씨는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해제 후 거래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매물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며 "신축 단지는 매물 자체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가 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실수요층이 탄탄해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목동·여의도·압구정 등은 실수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투자자들이 규제가 풀린 강남권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압여목성 등의 재건축 지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토허제 해제가 강남권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이후 거래량 증가 여부와 매매·전세 시장 반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 팀장은 "현재 서울 강남권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스트레스 DS 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소가 있다"며 "해제 효과가 점진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역금융본부와 주요 고객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Sh수협은행

신학기 Sh수협은행장, 릴레이 현장경영

전국금융본부·주요 고객사 방문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이 전국 지역금융본부와 주요 고객사를 연달아 방문했다.

Sh수협은행은 신학기 은행장이 제주지역금융본부를 시작으로 '현장밀착경영'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경영에서는 지역 내 영업점장과 업무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5년 핵심경쟁력 제고방안' 등

를 설명하고 주요 고객사도 방문했다.

노동진수협중앙회장이 주관하는 전남·경남지역수협회원조합 간담회에도 동참했다. 경영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신 행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중소기업이 미래 혁신성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Sh수협은행이 금융파트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 D-2

포스코 vs 두산, 법적 공방까지 번진 수주전

두산건설, 포스코이앤씨 고소 조합원들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기도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의 수주 경쟁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은 두산건설이 먼저 참전했고, 포스코이앤씨가 추가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점한 건설사가 있으면 추가 경쟁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적극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됐다"며 "은행주공은 사실상 서울과 맞먹는 입지를 가진 만큼 건설사에게 매력적인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이미 한 차례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단지다. 지난 2018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공사비 인상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다. 3.3㎡(평)당 공사비가 기존 445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인상돼 조합과의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698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59개월로 설정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연 2.5%를 초과할 경우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브랜드는 '더샵'을 적용하며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



포스코이앤씨(오른쪽)와 두산건설(왼쪽)이 각각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단지 투시도.

티에르'는 제외됐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8900억원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금융지원책도 내놓았다.

두산건설은 평당 635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하며 비교적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 공사 기간은 51개월로 설정했으며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해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앴다.

브랜드는 하이엔드급인 '더 제니스'를 적용해 단지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건설사가 제안한 공사비는 평당 600만원대 수준으로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평당 1000만원을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물가 상승과 원자재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제시한 공사비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합원들에게는 낮은 공사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사 간 법적 공방도 경쟁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산건설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이 입찰 마감 이후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마감 이후 신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입찰 지침 위반"이라며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도 두산건설의 홍보 활동이 입찰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제2차 경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은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지원기자 jiw13@

신한은행, 일임형 ISA 수익률 1위 쾌거

총 35개 부문 중 18개 부문서 1위 데이터 기반 자산 배분으로 성과

신한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모델 포트폴리오(MP) 대표 수익률 비교공시'에서 MP 유형 및 기간에 따른 총 35개 부문 중 18개 부문에서 은행권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상품 및 데이터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연기금 자산 배분 프로세스 도입 ▲AI 활용 경기 국면 판단모델 등 데이터 기반 자산 배분 프로세스를 통해 일임형 ISA 가입 고객의 수익률을 높였다.

특히 '고위험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5.78%로 고위험 MP 은행권 수익률 1위를 차지했으며 '고위험 액티브 포트폴리오' 상품의 1년 수익률도 15.68%로 고위험 MP 은행권 수익률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장 전문가들이 글로벌 분산투자를 바탕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절세 혜택 가능한 해외주식 전용 MP 출시 등 전략적 운용으로 은행권 최고 수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우선으로 고객의 자산 성장을 위해 몰입하고 고객가치를 높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사외이사 양성·역량강화 맞손

당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의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운영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균형감 있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은 예비·신임·재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경력 및 연차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또 사무국 업무 및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 이번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채무 구조도에 맞춰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라며 "국내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 흐름 속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한국지엠, 車산업 교두보 역할... 내수·수출 ‘투트랙’ 질주

국내 개발·생산 차량 경쟁력 강화
GM 산하 브랜드 제품 라인업 확대
“최적화 투자로 지속가능성 확보”

한국GM이 전략 차종을 앞세워 내수와 수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내서 개발, 생산한 차량의 수출에 집중하는 한편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서 경쟁력 있는 차종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 41만8782대를 수출하며 우리나라 수출 효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체 생산량(49만9559대)의 83.8%에 달한다. 수출 주력 차종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경우 한국에 있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개발을 주도한 차량으로 적자에 빠진 한국GM을 흑자로 돌려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미국 수출을 위해 선적 대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출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2022년 10월 약 1만8000여대를 수출하며 국산차 수출 1위를 기록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한국GM이 창원공장에서 2023년 2월부터 생산하는 소형 SUV이다. 북미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 1위(29만5000여대) 차종이 됐다.

이처럼 한국GM은 핵심 차량의 수

출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GM은 올해도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연간 50만대로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GM 산하 브랜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GM은 국내 시장에서 픽업트럭인 쉐보레 콜로라도와 풀사이즈 픽업트럭인 GMC 시에라,

풀사이즈 SUV모델 쉐보레 타호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특별한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의 다양한 신모델 출시로 라인업 확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 및 GM의 강점인 R V 모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국GM은 온스타 국내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온스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의 원격 제어는 물론, 차량 상태 정보, 차량 진단 기능 등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캐딜락 EV 데이’ 행사에서 GM의 자율주행 기술인 슈퍼 크루즈(Super Cruise)의 국내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채명신 디지털비즈니스 총괄은 “슈퍼 크루즈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 구축과 이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규제 등 다양한 부분

에서 국내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GM이 내수와 수출 공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철수설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은 뒤 2028년까지 10년간 한국 사업 지속과 신차 2종 생산을 약속했다. 이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만 추가 투자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GM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 ESG경영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 강화와 멀티 브랜드 전략,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법인 인턴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지난해 7월 서울 서비스센터 오픈 등 최신설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무선·투명·6K’ 차세대 K-OLED 뜬다

디스플레이 기업들 OLED 사업 고도화
車·IT 등 시장 확장 통해 수익성 개선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최근 급성장 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OLED’ 사업에 주력한다.

업계는 고부가가치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IT·전자시장과 차량용 패널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좁아진 입지를 탈피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 사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인공지능(AI) 시

대에 최적화된 차세대 OLED TV를 연이어 공개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회사는 세계 최초로 투명 OLED를 구현하는 한편,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휘도(화면 밝기) 4000니트(nit, 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를 달성한 ‘4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4세대 OLED 패널은 TV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최첨단 AI TV의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하반기에 8세대 OLED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8세대 랩은 오는 2027년까지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양사는 차량용, IT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

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과 협력하는 등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차량용 OLED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 맥북 프로와 아이폰SE 신제품에 OLED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OLED를 탑재한 애플 신형 아이패드 프로 모델에 IT용 OLED 패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게이밍 모니터 시장도 노린다. 최근 TV보다 게이밍용이나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게이밍 모니터의 핵심 기술인 주사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아이오닉 9’ 공개

1회 충전주행 거리 532km 달해

현대자동차가 첫 전동화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9’를 13일 출시하고 소비자 공략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를 통해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아이오닉 9의 판매 가격을 낮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돌파한다.

아이오닉 9는 E-GMP(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전동화 SUV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또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32km에 달하고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350kW급 충전기로 24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오른쪽부터), MLV전기차성능시험팀 윤동필 팀장, MLV프로젝트5팀 김태현 팀장, MLV총합시험팀 지승욱 책임연구원, 배터리설계1팀 최준석 팀장, 국내마케팅실장 이철민 상무가 1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첫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 ‘아이오닉 9’ 출시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분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했다.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은 “아이오닉 9의 공간과 대용량 배터리 기반의 우수한 전력 활용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된 편의사양은 공존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 설립 20주년

정의선 “완벽한 품질·성능 확보 지속 노력”

(현대차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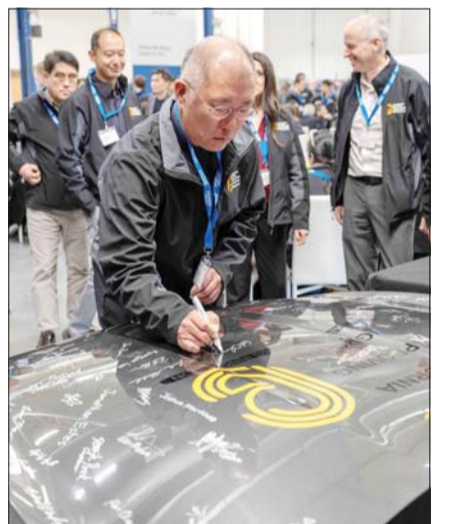
장재훈 부회장 등 참석... 현장 소통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설립 20주년을 맞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이하 모하비주행시험장)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차·기아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티에 위치한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완벽한 품질과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연구원들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 등이 참석해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모하비주행시험장과 연구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AI(인공지능), 로봇공학, 전동화, 수소 기술 등의 혁신을 위해 모하비주행시험장과 같은 연구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티에 위치한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된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념 사인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지 연구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여정에서도 도전 기회를, 좌절을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LS전선·마린솔루션, 英 해상풍력 사업 착수

발모랄 컴텍 사업협력 MOU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영국 기업과 협력해 해상풍력 케이블의 안정적인 운용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발모랄 컴텍(BALMORAL COMTEC)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흑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을 개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모랄 컴텍과 협력하여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의 안전한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LS마린솔루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AI로 성장동력 마련하는 양대 포털

네이버 '자체기술' vs 카카오 '챗 GPT 활용'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
외부 LLM 도입으로 시너지 전략

카카오 AI 카카나에 오픈AI 이식
AI 에이전트 개발... 연내 공개 목표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다른 인공지능(AI) 전략으로 맞붙는다. 네이버가 거대언어모델(LLM)을 중점에 두고 외부 AI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운 데 비해, 카카오는 미국 오픈AI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소프트웨어(SW) 기술 중심의 AI 사업을 펼친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다.

13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기 2024년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상반된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는 IT 플랫폼 기업 사상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들며 역량을 떨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11% 늘어난 10조 7377억 원, 영업이익은 32.9% 증가한 1조 979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내부 체질 개선을 도모하며

AI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조 873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4915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AI 사업의 영업손실이 영업이익 증가세를 꺾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5년 전후 다른 AI 전략을 세우고 기업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자체 LLM에 외부 LLM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는 외부 LLM을 적극 받아들이고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체 LLM이자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된 '하이퍼클로바X'의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자체 LLM만을 활용하려던 전략을 수정, 외부 LLM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경쟁사들이 무제한적으로 AI 성능을 확장하는 반면,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글로벌 빅테크 LLM 등 외부 다양한 LLM과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올해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요 매출처인 검색 광고 사업은 AI 엔진을 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한편 외부 매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커머스 분야는 상반기 중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출시해 커머스 부문 이용자의 록인(Lock-In)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적극적으로 외부 LLM을 도입하고 AI 소프트웨어 파워에 집중한다.

지난해 카카오는 외부 LLM을 활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빅테크의 LLM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조직을 별도로 조직했다.

이번 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AI 에이전트(비서) '카나나'에 오픈AI의 챗GPT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와 오픈AI는 카카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내에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네이티브 컴퍼니(AI native company)'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를 카카오톡과 별도 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나나는 이용자와 일대일 대화하는 것을 넘어 그룹 채팅에서 다대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차별점이다.

정 대표는 "올해 상반기 퍼블릭 CBT(일반 사용자 대상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클라우드와 리벨리온이 사우디아라비아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왼쪽),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우디 AI구축 MOU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LEAP 2025' 행사에서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사우디아라비아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술 역량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랍어 기반 LLM 사업 협업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사 및 잠재 고객 공동 발굴 ▲사우디아라비아 AI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한다.

네이버는 LLM을 사전학습 단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리벨리온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AI 반도체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토대로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현재 아랍코 데이터 센터 사업화와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우디의 AI 인프라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서현 기자

LG CNS, 델테크놀로지스와 맞손... AI사업 동맹 강화

국내외 고객사들 AI 전환 돕고
AI 인프라·솔루션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전환(AI) 전문기업 LG CNS가 델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국내외 AI 사업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LG CNS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델테크놀로지스와 AI 인프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LG CNS는 AI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델 AI 팩토리'의 개방형 생태계에 한국 AX 파트너로 참여해 국내외 고객사들의 AI 전환을 돕는다.

델 AI 팩토리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 델의 서버, 스토리지,

AI인프라사업 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현신균 LG CNS 대표(우)와 김경진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총괄 사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LG CNS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결합하는 개방형 에코 시스템 방식으로 파트너사들의 AI 활용을 지

원한다. 양사는 AI 인프라 협업체를 꾸려 공동 AI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술

교류를 이어나가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 인프라 설비·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향후 이들 기업은 AI 솔루션·서비스 분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LG CNS의 생성형 AI 기술인 'D AP GenAI 플랫폼' 및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을 델 AI 팩토리와 결합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올해 금융, 제조,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통한 고객 가치 혁신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델테크놀로지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리멤버앤컴퍼니 '자소설닷컴' 자회사 흡수

회원 130만명 보유 신입채용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가 신입부터 경력까지 직장인들의 커리어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했다.

경력직 채용 플랫폼 '리멤버' 운영사인 리멤버앤컴퍼니는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 '자소설닷컴' 운영 자회사 앵커리어를 흡수 합병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소설닷컴은 1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이다. 기업별 채용 일정·공고 확인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자

간 소통까지 가능하다.

리멤버앤컴퍼니는 "자소설닷컴의 가장 큰 무기는 우수한 인재 풀"이라며 "국내 상위권 대학 취업생의 60% 이상이 자소설닷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리멤버앤컴퍼니는 경력과 신입 채용 특화 플랫폼을 모두 보유한 채용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인 기업에 경력직뿐 아니라 자소설닷컴의 우수한 신입까지 전 연차를 아우르는 핵심 인재 채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T, 작년 매출 26.4조 '역대최대' 달성

"올해 AX 역량강화·혁신 기반
지속가능한 성장 이룰 것"

KT가 1998년 상장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KT는 13일 지난해 매출 연결기준 26조 4312억원, 별도 기준 18조 579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0.2%, 1.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분기에 시행한 인력 구조개선 등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되며 연결기준 8095억원, 별도기준 3465억 원을 기록했다.

KT의 장민 CFO는 "2024년 KT그룹은 AICT 기업으로의 전환과 본업 경쟁

력 강화를 통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는 AX 역량 강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KT의 기업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선 사업은 온라인 무약정 요금제 '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며 전년 대비 1.3%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5G 가입자 비율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77.8%를 기록했다. 무선 서비스 매출은 5G 가입자 수 증가와 로밍 사업 및 MNVO 사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김서현 기자

우아한형제들 1230명 중·소상공인에 노무상담·교육 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노무 컨설팅과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민 관계자는 "1:1 노무 컨설팅은 시간을 내기 힘든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며 "전화 상담은 생업으로 바빠 대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업주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업주의 니즈에 맞춰 프로그램에 여러 상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배민은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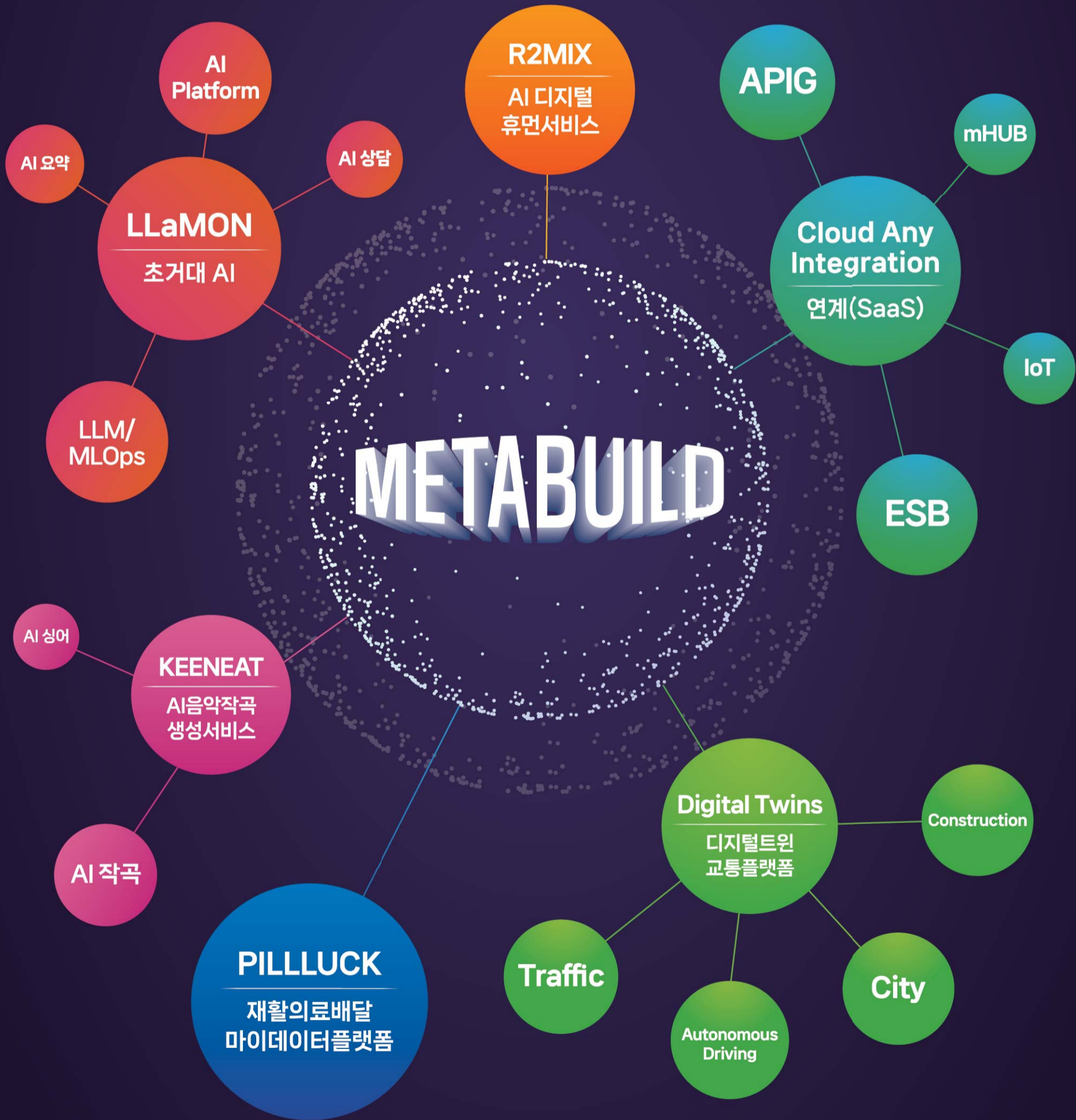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시로 똑똑해진 '히트펌프 건조기'... LG전자, 북미시장 공략

'KBIS 2025'서 건조기 라인업 전시
친환경성·설치 용이성에 관심 ↑

AI DD모터로 무게·습도 등 분석
건조시간 줄이고 옷감 손상 최소화

LG전자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코어테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한 프리미엄 건조기 제품들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5~27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5'에서 AI를 더한 핵심 부품 기술력(코어테크)으로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건조기 라인업을 집중 전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히트펌프 건조기는 컴프레서로 냉매를 압축해 만든 건조한 공기를 내부 순



LG전자 히트펌프 건조기(오른쪽)가 세탁기와 병렬로 설치돼 있다.

LG전자

환시켜 저온제습하는 방식이다. 가스·전기 히터로 공기를 가열하는 '배기식 건조기'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낮고 옷감 손상도 적을 뿐 아니라, 습증기 배출용 배관을 벽에 뚫을 필요 없어 설치도

편리하다. 국내에서 대세로 자리잡은 히트펌프 건조기의 친환경성·설치 용이성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세계 최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인 북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LG전자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히트펌프 건조기는 북미 시장 최초로 AI DD모터를 탑재한 제품이다.

세탁조·건조통(드럼)과 모터를 직결한다는 의미의 DD(Direct Drive)모터는 벨트로 드럼을 감아 돌리는 방식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한다. 특히 세탁물의 무게·습도·옷감 종류 등을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해 세탁·건조 강도를 세탁물에 맞게 자동 조절한다.

LG전자는 세탁기에 먼저 탑재한 AI DD모터를 지난해부터 건조기에도 업계 최초로 적용했다. 건조통이 움직이는 속도를 섬세하게 제어, 드럼 내 세탁물의 낙차를 줄여 한 방향으로 정속 회전하는 일반 건조기보다 옷감 수축을 개선한다.

또한 건조통 내 습도·전류량 등을 분석해 옷감의 종류와 무게에 최적화해 건조함으로써 건조시간을 줄이고 옷감 손상도 최소화한다.

LG전자는 이번에 전시하는 히트펌프 건조기 전 라인업에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용했다. 듀얼 실린더 방식은 싱글 실린더 대비 냉매 압축·순환 효율이 높아 건조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

LG전자는 AI 및 핵심 부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급성장 중인 히트펌프 건조기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테로에 따르면, 전세계 히트펌프 건조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8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14% 성장해 2032년 약 1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중진공, 청년 AI 개발자 145명 배출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졸업식
23명, IT 기업에 졸업 전 취업
오는 23일까지 5기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청년 AI개발자 145명을 배출했다.

중진공은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모리스 역삼에서 '이어드림 스쿨 제4기 교육생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어드림 스쿨은 AI 분야 스타트업의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AI분야 실무인력으로 양성해 취·창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3월에 입교해 12월까지 초급 이론 교육부터 기초 및 심화 단계로 구성된 AI 직무 특

화과정, 인턴십 등 스타트업 연계 실천 프로젝트까지 취·창업에 중점을 둔 10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글로벌 AI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수상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AI 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한 'ICCE x innovation 창업 IR 경진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AI 경진대회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4기 과정을 수료한 145명 중 23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내실 있는 IT 기업에 정규 교육과정 졸업 전

취업에 성공했다. 4기 취업자의 73%인 17명은 AI분야 비전공자 교육생이다.

중진공 조찬고 인력성장이사는 "AI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사업 영역의 확대도 향후 개발자 인력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이어드림 스쿨을 통해 우수한 청년 개발자를 양성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이달 23일까지 이어드림 스쿨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과정 150명과 대면 현장 집합 과정 50명 등 총 200명을 양성한다. 학력·전공 관계없이 39세 이하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은 문화관광투어 '장뜰애(愛) 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 단위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

증평장뜰시장에 부는 '새바람' 주변 관광지 연계로 인파 '복적'

'장뜰애 가자' 1800여명 다녀가
5년간 관광지 방문객 92.6% ↑
시장 상인·관광객 만족도 높아

"엄마, 여권 주세요. 제가 스탬프 찍을게요."

한 가족이 여권을 들고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장뜰시장 곳곳을 누빈다.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다녀온 사람들도 삼삼오오 짝을 이뤄 스탬프 투어를 즐기고 있다.

증평의 대표 전통시장인 증평장뜰시장이 2년간 운영한 문화관광투어 '장뜰애(愛) 가자' 프로그램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장뜰애 가자'는 지역 문화여행지 16곳 가운데 8곳 이상을 여행하고 증평문화여행권에 스탬프를 찍어 인증하면 증평장뜰시장 축제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증평장뜰시장은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주변 관광지와 가까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문화관광투어를 기획했다.

실제 증평군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92.6% 늘며 2023년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증평장뜰시장 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투어 '장뜰애 가자'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운영해 1800여명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중소기업부의 동행축제와 어린이 장보기 체험과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발전에 기여하며 증평장뜰시장과 관광지를 잇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고객들은 증평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좋고, 주민과 상인들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권에 활기를 더할 수 있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시장 특화 요소 브랜드 인지도 역시 92% 개선되는 등 긍정적이었다.

이같이 문화관광투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계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데 집중된 증평장뜰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또한, 증평장뜰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장뜰클린데이 '흔들어주세요'를 운영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위생, 청결 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초대형 물류센터 인수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

LX판토스가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초대형 물류센터를 사들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가 풀필먼트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본격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LX판토스는 인천 서구 원창동 393-50번지에 위치한 초대형 풀필먼트센터를 인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지면적 2만6025㎡, 연면적 14만2852㎡에 총 11개 층으로,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신규 물류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북항-내항-신항에 인접해 항공·해상물류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LX판토스는 신규 물류센터를 'K-컬처 플래그십 센터'로 삼아 이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본격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컬처 제품의 역직구 수출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커머스 고객들을 위한 풀필먼트-해외배송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바닥재·벽지 제품 조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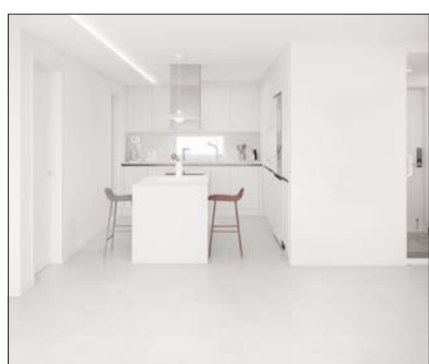
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전·월세 고객을 대상으로 'LX Z:IN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13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가장 많이 협의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바닥 및 도배 공사임을 감안해 바닥재·벽지 제품 조합으로 구성했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는 베스트 셀러 제품인 '지아자연애-그레이콘 크리트'와 '베스피-테라코타 화이트'로 조합,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이트·그레이 계열의 색상 맞춤으로 깔끔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톤온톤(Tone on Tone; 유사 컬러 배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두 패키지 모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와 디자인을 조합한 ▲미니멀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모던 스타일 등 3종으로 구성했다.

대표 패키지 상품인 '일반형·미니멀



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LX Z:IN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스타일'의 경우 '지아자연애-그레이콘 크리트'와 '베스피-테라코타 화이트'로 조합,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이트·그레이 계열의 색상 맞춤으로 깔끔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톤온톤(Tone on Tone; 유사 컬러 배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 관련 상담 및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LX Z:IN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간이검사, 신뢰성 없어… 회계감사 세무사 개방 강력반대”

한공회, 기존체계 복원 촉구

민간위탁사업비 감사 수행에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도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화 초래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 필요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난 12일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가 간이검사로 대체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회계 투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세무사와 회계사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가 전담했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가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에게도 개방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존 회계감사 체계의 복원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외부감사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도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개최된 ‘비영리·공공분야 회계투명성’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를 간이 검증만 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

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간이검사 전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나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만이 민간위탁사업비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판결 후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회계감사 대신 간이검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공회는 이러한 흐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통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은 민간 부문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간이검

사는 사업비 부정사용을 적발할 수 없다”며 “증빙 확인만으로는 거래 실재성과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 단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원상복구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레버리지 투자 증가... CFD 전년비 50% ↑

금투협, CFD잔고 1조6728억 집계 내달 말 공매도 재개엔 수요 더 늘듯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레버리지 투자와 절세 수요의 증가로 차액결제거래(CFD)가 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CFD 명목 잔고(증거금 포함)는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라덕연 사태 이전인 지난 2023년 3월 말 잔고(2조7697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40% 낮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5월(1조169억원)보다는 64%가량 증가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중 하나다. 즉, 레버리지(부채를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를 통한

거래다. 절세 효과를 노린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증시 상승세도 CFD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지난 11일 기준 해외 CFD 매수 잔액은 5415억 원으로, 전년(1391억 원) 대비 4000억원가량 급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쫓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월 말 이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CFD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CFD는 상승은 물론 하락에도 베풀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CFD 매도 포지션이 제한된 상황이다. 증권업

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 관련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CFD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CFD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11일 100% 증거금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 레버리지 CFD계좌에서만 가능하던 해외주식 프리마켓거래가 100% 증거금 CFD계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교보증권은 국내 및 해외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매매하는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국내를 비롯한 해외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호주)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 가능하다. /원관희 기자 wkh@

상장회사협의회 “상법개정안, 위헌 소지”

전 헌법학회장에 검토 의뢰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에게 검토를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하 의견서)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이사에 대해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경제계는 남소위험 증가, 경영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헌법 제119조)과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사와 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과 이사의 행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 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의 의무에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사례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관계임과 달리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상법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타겟커버드콜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 지난달 말 1000억 돌파 이후 단 10영업일 만에 성과 이뤘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코스피200과 장내 파생상품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타겟커버드콜 ETF로 지난 1월 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단 10영업일 만에 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연 15%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주단위 코스피200의 콜옵션매도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



가 상승할 경우 해당 지수 상승에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 2%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코스피200종목의 배당금도 합산해 월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 배분 수익률은 연 17%에 달한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은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으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 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 인니법인 ‘지속가능 연계채권’ 발행

동남아 투자전문매체서 최우수상 수상

한국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법인 ‘PT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앤드 스쿠리타스 인도네시아(KISI)’가 동남아시아 투자 전문 매체인 알파 사우스이스트아시아(Alpha Southeast Asia)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속가능 연계 채권 2024’ 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KISI는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스펀도의 ‘지속가능 연계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남경훈 KISI 법인장은 “이번 수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리테일 및



(왼쪽부터) 요하네스 W. 에드워드(Johanes W. Edward) 스펀도 CEO, 시디크 바자르왈라(Siddiq Bazarwala) 알파사우스이스트아시아 CEO, 남경훈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 /한국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5000억 투입

산업부, 올 예산 4990억 지원
R&D·신규과제 4326억 할당

희토류 의존도 낮춘 모터 개발
배터리 안전성 초격차 기술 등
미래차 핵심기술 육성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자율주행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 등에 4990억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4425억원 대비 12.8% (56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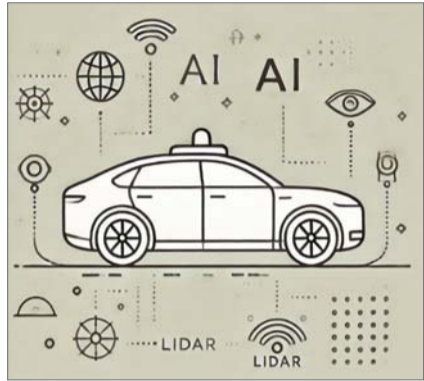
산업부는 올해 총 4326억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이 중 644억원은 신규과제에 할당했다. 이에 14일 1차 신규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제로(사고, 운전자 개입, 기

〈2025년 자동차 분야 지원 예산〉

분야	2024	2025	증감율
친환경차	2363억원	2328억원	△1.5%
자율주행차	1562억원	1997억원	27.8%
기반구축	500억	665억	32.9%
합계	4425억원	4990억원	12.8%

/산업부



챗GPT에 의해 생성된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이미지.

솔격차 없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는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를 개발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엔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5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올해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과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 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제9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부발전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안 마련할 것”

남부발전 '탄소중립녹색성장' 김동준 “新동력, 전사 역량 집중”

한국남부발전이 신규자문단을 꾸려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12일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경영진과 외부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준동 사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CCS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신규 자문위원들과 함께 무탄소 신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에서는 권이균 공주대 교수가 '국내외 CCS 현황과 기술 경쟁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권 교수는 "CCS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한 옵션 중 하나

라며 "수소 및 수소화합물 혼소·전소 등 신기술과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탄력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내·외 자문단은 국내외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 기술개발 수준, 세계 에너지 시장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화력발전소를 미래에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써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김준동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남부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화력발전소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최적의 무탄소 전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20개사 제재

공정위, 동성사·한샘 등 적발
190건 입찰서 사전 합의·실행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작용”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20개 가구사들이 10년 이상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개 시스템가구 납품사들이 2012년 2월 ~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가구사는 넥스디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자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널·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강크라징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넥스디 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한샘넥서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영일산업(33억2400만원)·자마트(15억9300만원)·한샘(15억7900만원) 순이다.

또 담합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협



20개 가구사들의 순번제 합의 증거

/공정위

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자마트·한샘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가구사 영업 담당자들은 건설사들이 전국 각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또 향후 진행될 다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자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2010년 전후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하며 가격경쟁이 심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입찰 담합은 앞서 '내장형 특판 가구 입찰담합 건(2024년 4월)',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2024년 10월)'에 이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사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 가구건만 보면 평형에 따라 55만원 ~ 350만원의 시공 비용 중 일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충북도 고병원성AI 방역실태 특별점검

농식품부, 가축방역상황실 등 방문
차질없는 검사·내외부 소통 등 지시

정부가 충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에 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

충북 지역에선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인 1월30일부터 2주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음성과 진천에서만 이번 동절기에 각각 3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농축산식품부의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충청

북도는 위험 사·군 일제 검사,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2주간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와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국내 가금류농장 고병원성 AI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정부에 보고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음성과 진천 가금 농장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9개소)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 1위 '북한산'

2위 지리산, 3위 무등산 順
오대산 증가폭 최고, 32% ↑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관리 중인 산(山) 가운데 9곳이 탐방객 수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3대 명산 중에는 지리산(2위)과 설악산(5위)이 9위권에 들었다. 한라산은 10위에 올랐다.

13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국립공원 산 중 탐방객 수 1위는 북한산이었다. 699만 명이 찾았다. 2위는 지리산(376만 명), 3위는 무등산(241만 명), 4위는 계룡산

(232만 명), 5위는 설악산(210만 명), 6위는 내장산(204만 명)이었다.

이어 오대산(164만 명), 속리산(126만 명), 덕유산(111만 명)이 각각 7, 8, 9위에 자리했다. 한라산(10위·93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오대산의 경우, 작년 탐방객 증가폭이 국립공원 중 가장 컸다. 2023년(124만 명)에 비해 32% 늘어났다. 특히 오대산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 수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 명 증가한 147만 명에 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5년 2월 25일(화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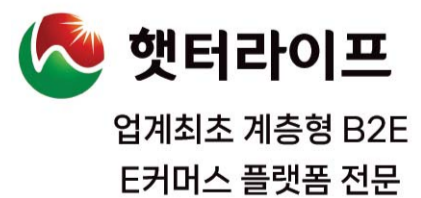
==> 법인폰 : 010-3088-0047 / E-mail : htmallcom@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햏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햏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3088-0047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충북대·원광대·울산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판정결과 유예기간 1년... 올해엔 영향 없어 미흡사항 보완해 1년 내 재평가 재평가서 탈락 시 신입생 모집 제한

올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 중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 의대가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13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평원은 금명간 2024년(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판정 결과를 의대 30곳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의대는 충북대와 원광대, 울산대 의대 등 3곳으로, 유예 기간이 1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기존 인증 상태는 유지되지만, 그 이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유예 기간동안 인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현재 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충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 의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

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 의대는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기존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늘었다. 원광대 의대는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울산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 의평원은 이번 판정 결과에 오는 27

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결과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대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의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 판정은 4월 중순까지 이뤄진다.

이들 대학은 1년 이내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경우, 해당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의사 국가 시험을 볼 수 없어 사실상 신입생 모집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이 의대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2024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 특별 대담하는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임희운 음악평론가.

고양시 지드래곤 월드투어 '위버맨쉬' 공연 유치

고양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지드래곤(G-DRAGON)의 2025년 글로벌 월드투어 '위버맨쉬(Ubermensch)'가 오는 3월 29일(토)과 30일(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 중 하나이며, 쿠팡플레이의 첫 협력 사례로서 향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맨쉬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쿠팡플레이는 한국 공연의 프렌들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드래곤만의 독창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더욱 차별화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대형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공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양종합운동장은 그동안 카니에 웨스트,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공연장으로, 이제는 K-POP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 시작점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공연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쿠팡플레이는 차별화된 라이브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양시와 협력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드래곤 월드투어뿐만 아니라,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등 대형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6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주재로 '고양시 대형공연 유치사업 행정지원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40여 개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난해 서울시 교통량 줄었다... 휴일에도 감소세

평일 기준 995만3000대 집계 올림픽대로, 교통량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시 내 교통량이 평일 기준 995만3000대로 집계됐다. 1000만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5만4000대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509개 도로, 139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통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휴일에도 교통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통행 차량 대수는 전년보다 1만대 감소한 875만5000대를 기록했다.

교통량은 2023년도 1000만대 수준에서 약 1년만에 900만대 수준으로 진입했으며, 전년대비 교통 상황이 원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평균 통행 속도는 평일 22.0km/h, 휴일 24.1km/h로 전년대비

속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량은 작년 대비 4000대 감소한 137만8000대, 통행 속도는 작년 대비 0.3km/h 증가한 50.2km/h를 기록했다.

순위	도로명	2024년	2023년	증감
1	올림픽대로	24.2	24.5	-0.3
2	강변북로	22.3	22.7	-0.4
3	경부고속도로	18.9	19.1	-0.2
4	내부순환로	14.0	13.9	+0.1
5	동부간선도로	13.5	13.4	+0.1
6	분당수서로	13.3	13.3	0.0
7	북부간선도로	10.9	10.8	+0.1
8	강남순환로	9.1	9.3	-0.2
9	신일여의지하도로	5.9	5.6	+0.3
10	서부간선지하도로	5.2	5.1	+0.1

/서울시

했다. 전체 평균 속도는 22.7km/h다. 서울 도심 및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인 10개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작년 대비 교통량 및 속도 방면에서 소

폭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량은 작년 대비 4000대 감소한 137만8000대, 통행 속도는 작년 대비 0.3km/h 증가한 50.2km/h를 기록했다.

각 도로별 세부적인 교통량 및 속도 추이에 따르면, 도시고속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는 평일 평균 24만2000대가 이용하는 '올림픽대로'가 꼽혔다. 반면 교통량이 가장 적은 곳은 평일 평균 5만2000대가 이용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로 분석됐다. 주요 지점인 '올림픽대로'는 1년 전보다 3000대, '강변북로' 4000대 감소했다.

반면 도시고속도로 중 가장 느린 도로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39.6km/h인 북부간선도로, 가장 빠른 도로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81.6km/h인 강남순환도로로 분석됐다. 시내부 도로 중 가장 느린 도로로는 일 평균 통행속도가 16.5km/h인 우정국로 분석됐다.

월별 통행행태를 살펴보면 1월 교통량이 655만4000대로 가장 적고 6월에 694만1000대로 가장 많았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의 교통량이 825만5000대로 가장 적고 금요일이 1021만9000대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내 발생한 공사·사고·고장 등 돌발건수는 전년 대비 2043건 감소한 총 5만457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사 및 집회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8건 증가한 1954건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관심 있는 도로 현황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 TOPIS 누리집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통운영 및 소통관리를 위한 주요 정체지점 관리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농촌유학 학생, 누적 2200명 돌파

서울시교육청, 1학기 381명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신규 모집한 결과, 총 381명의 학생이 신청하며 누적 2200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1학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의 농촌유학에 서울 학생은 총 381명이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신규 참여 학생은 150명이고, 연장하는 학생은 231명이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1학기 이상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친화교육을 받고 각종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누적 참여 학생 수는 2232명에 이르며,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위한 대표 교육 모델

로 자리 잡고 있다. 연도별 누적 학생 수는 2021년 228명에서 2022년 714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 뒤, 2023년 1197명, 2024년 1851명, 2025년 1학기 2232명으로 2000명대를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 1~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또는 1년동안 참여한다.

지역별로는 ▲강원(신규 87명, 연장 79명) ▲전남(신규 42명, 연장 101명) ▲전북(신규 21명, 연장 51명)으로, 신규 신청은 강원 지역이, 연장 신청은 전남 지역이 가장 많다.

오는 1학기 농촌유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월 중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및 전학 신청을 한 후 3월부터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스마트청사'로 탈바꿈

오는 17일부터 정상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신월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이 청사 리모델링 준공으로 청사를 재이전, 오는 17일부터 스마트청사에서 정상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35년된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과 교육지원청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지난 1월 준공해 청사 재이전을 하게 됐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사운영 중단없이 14일까지는 옛 공진중학교 부지인 강서구 양천로 임시청사에서, 17일부터는 양천구 월정로 269 스마트청사에서 정상 운영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스마트청사는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청사 리모델링 준공으로 청사를 재이전, 오는 17일부터 스마트청사에서 정상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구조 변경, '첨단 정보형 사무실' 환경으로 탈바꿈해 교육지원청사로 거듭난다.

청사 1~3층은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자율좌석제' 사무공간과 7개의 미팅룸으로 구성하고, 4층 전체는 '개방형 공간'으로 대강당, 라운지, 중·대회의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총동문회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홍광희·서경교 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양인집)는 13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는 대한민국 수입 시스템 개선과 국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려 홍광희(스페인어통번역 83) 뉴코리아진흥 대표를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 모교에서 28년 6개월 동안 후학 양성과 학교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서경교(정치외교 78)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자랑스러운 외대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

“아워홈, 최적 파트너 한화 만나… 임직원 고용안정 보장”

이영표 아워홈 경영총괄 사장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동력 잃어
지속성장 위해 경영권 이양 결정”
지분 57.84% 매매, 총 8695억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 앞 모습. /뉴스1

종합식품 기업 아워홈이 한화그룹과의 인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새로운 경영 체제 속에서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영표 아워홈 경영총괄 사장은 지난 12일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한화그룹 인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사장은 아워홈 창업주 구자학 명예회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내며, 가장 오랜 시간 아워홈에서 근무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먼저 이 사장은 회사의 경영권 이양

이유를 설명하며 “과거 아워홈은 업계의 부러움을 샀던 기업이었지만,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미현 회장님께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주체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했고, 다행히 아워홈의 발전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를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고

용 승계를 명확히 보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장님께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를 계약서에 명기했다”고 밝히면서 인수 이후의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화그룹 자회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앞서 이사회를 통해 아워홈 인수 계약을 승인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현 회장이 보유한 아워홈 주식 57.8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됐다. 주식매매계약은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으로, 인수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일정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해당 지분 인수가는 8695억원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인수를 위해 신설 법인 ‘우리집에프앤비’(가칭)를 설

립하고 25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사모펀드인 IMM크레딧솔루션으로부터도 2500억~3000억원을 끌어온다.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 인수단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수는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등 최근 성장성이 높은 식품 산업을 공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높은 품질의 F&B(식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인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의 유통·서비스 부문과 아워홈의 강점을 결합해 국내외 식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오리온 ‘코코망고 알맹이’ 출시

오리온은 코코넛과 망고 두 가지 맛과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코망고 알맹이(사진)’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코망고 알맹이는 과일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구현한 알맹이 젤리 시리즈의 다섯번째 제품이다. 기존 포도·자두·리찌·키위 알맹이가 한 가지 과일의 맛과 모양, 식감을 표현했다면, 코코망고 알맹이는 두 가지 과일을 믹스해 선보이는 첫 알맹이 젤리로 맛과 식감을 한번에 맞출 수 있도록 완성했다.

겉은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노란색 망고 젤리가, 속은 하얀색 과육의 탱탱한 코코넛 젤리가 들어있어 취향에 따라 까서 따로 먹거나 한입에 먹는 재미도 이색적이다.

오리온은 새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들과의 점점 확대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알맹이 젤리 팝업스토어 ‘알맹이네 과일가게 시즌2’를 운영 중이다. 코코망고 알맹이는 14일부터 팝업스토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재밌게 즐기고 무료 시식과 구매까지 가능하다. 3월 초부터는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 채널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강서에 첫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마곡점’ 문열어

이마트, 3520평 트레이더스 최대규모 매장 13곳에 로드쇼 전용공간 마련
22일까지 개점기념 할인행사 진행

이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인 마곡점을 연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지난 2013년 수원 화서점 이후 14개월 만에 개점하는 점포다. 서울 지역에서는 2019년 월계점 이후 두 번째로 개점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 첫 창고형 할인점이다. 약 3520평 규모로 기존 트레이더스 매장 중 가장 넓게 조성됐다.

마곡점은 ‘상권 맞춤형’ 콘셉트로 설계됐다. 마곡점 전용 단독 상품과 특화 로드쇼를 통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권 고객까지 공략한다는 계



트레이더스 마곡점 내부 전경 이미지 사진. /이마트

획이다.

먼저, 트레이더스는 마곡점에 최대 규모의 로드쇼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매장 내 13곳에 로드쇼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식품을 비롯해 일본 반다이 남코의 장난감, 스위스로지텍의

게이밍 기기 등 전자·완구 제품을 선보인다.

‘T카페’도 170평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T카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내에서 운영하는 자체 카페 브랜드로, 지름 45cm 대형 피자, 치즈 오븐스

파게티, 무한리필 탄산음료 등 다양한 식품을 제공한다.

트레이더스마곡점은 개점을 기념해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호주산 냉동 차돌박이’, ‘호주산 냉장 대구 구이 모듬’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내달 2일까지는 TV, 냉장고, 워시 콤보 등 대형 가전제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트레이더스 자체 브랜드(PB) ‘T-STANDARD’ 할인 행사도 운영한다.

이마트 최택원 영업본부장은 “지난 15년간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트레이더스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총집합한 마곡점을 오픈한다”며 “마곡점은 트레이더스만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차별화된 상품 그리고 지역 상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강서 지역·경기 서부권의 쇼핑 랜드마크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홈쇼핑 ‘롯데뷰’ 중장년 콘텐츠 확대 시니어 마케팅 강화

롯데홈쇼핑이 공식 유튜브 채널 ‘롯데뷰’에서 중장년층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며 시니어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 12일 50·60대 시청자를 위한 리빙 프로그램 ‘우리집 집들이’를 공개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일반인 중장년층이 직접 마련한 단독주택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형식으로, 인테리어 팁과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함께 소개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요리 프로그램 ‘건강식사’를 론칭했다. 또, 12월에는 50대 모델 ‘다정한 언니 씨니’가 출연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쇼핑의 참견’도 선보였다. 이 콘텐츠에서는 동안 메이크업, 저속 노화를 위한 아침 루틴 등 활동적인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장년층 대상 유튜브 콘텐츠 확대는 TV홈쇼핑의 핵심 고객층인 50·60대를 겨냥한 시니어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GS샵, 내일부터 ‘지에스 스타일’ 개최

100대 브랜드 1만개 상품 선봬
9일간 휠라 등 브랜드상품 소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및 e커머스 기업 ‘GS샵’이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최대 패션 행사 ‘지에스스타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에스스타일’은 지난해 말 신설된 GS샵의 ‘통합채널사업부’가 기획한 마케팅 캠페인이다. 업계 대표 패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상품, 채널 및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한다 전락이다.

GS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지에스 스타일’ 특집 매장에서 100대 브랜드 1만 개 상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그 중 대표적으로 ‘오늘의 브랜드’ 코너를 통해 9일간 매일 1개의 브랜드 상품을 선정해 소개한다. ▲코어 어

센틱 ▲SJ와니 ▲제이슨우 ▲스케쳐스 ▲휠라 등 9개 브랜드 상품이 포함됐다.

한편, GS샵은 이들 9개 브랜드 신상품 100여 개를 홈쇼핑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복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무드’, 세련된 기분을 강조하는 ‘모던 클래식’, 편안함을 겸비한 아웃도어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등 올해 봄·여름 시즌을 주도할 3가지 트렌드를 제안한다.

홈쇼핑 방송과 라이브 커머스 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채널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콘텐츠로 대표 상품들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에스스타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현대백, 예비 신혼부부 위한 ‘웨딩페이’

결제금액 따라 최대 5% 적립

현대백화점이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웨딩 멤버십 ‘클럽웨딩’ 고객을 대상으로 ‘웨딩페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럽웨딩’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인 H포인트 회원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 전용 멤버십이다. 가입 후 9개월 동안 현대백화점 전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에 따라 최대 5%를 H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물 및 혼수 준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이 마련됐다. ‘웨딩 고객 더블 마일리지 행사’를 통해 명품·위차·주얼리 구매 시 기본 적립 금액의 2배를 웨딩 마일리지로 제공한다. 또한, 무역센터점 등 일부 점포에서는 구매 금액대 별 7%를 돌려주는 리워드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프레드 매장서 예비부부 고객이 직원에게 예물을 상담받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가전·가구 구매 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주말에 삼성·LG 매장에서 현대백화점 카드로 3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금액대 별 최대 8.5%를 H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또한, 에이스·템퍼 등 가구 매장에서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대 별 최대 15%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큐라클, 'CU06' 등 R&D 집중 대형 치료제 시장 경쟁력 높인다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CU71' 등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중심 실적반등 예고
"도전하는 과정도 긍정적 영향"



국내 신약개발 기업 큐라클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성장동력 마련에 속도를 낸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클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 최초 경구용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CU06'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회의를 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유형C미팅은 의약품 개발사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비정례 회의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해임 및 허가 전략을 구체화해 규제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다.

이번 자리에서 큐라클은 망막질환인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적응증으로 한 CU06 미국 임상 2a상 결과를 근거로, 임상 2b상, 임상 3상, 품목허가까지 각 단계별 개발 전략을 강화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큐라클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라클은 올해 CU06 임상 2b상 시험계획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해당 임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앞서 CU06 임상 2a상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중 최초로 시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 시작부터 투약

3개월 차까지 나타난 시력 개선 효과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루센티스와 유사한 것으로 입증됐다. 12개월 실사용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약물 효능이 나타났다.

루센티스는 안구 내 주사제로 계열 내 최초 신약이다. 현재까지 상업화된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는 안구 내 주사 방식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약물이 대부분이며, 경구용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큐라클 측은 "이번에 위약 대비 CU06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임상 계획도 다뤘는데,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약물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의 임상에서도 CU06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큐라클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인 CU71 임상에도 올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 FDA에 사전 미팅을 먼저 신청하고 임상 1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큐라클은 CU71을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CU71 물

질특허를 출원했고 올해 들어 용도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

이처럼 큐라클은 미중족 의료 수요가 높고 시장성이 큰 질환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CU06이 포함되는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은 당뇨병성 황반부종과 습성 황반변성을 합쳐 오는 2031년 약 4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CU71의 경우, 세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오는 2033년 약 36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대형 치료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큐라클은 실적 반등까지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큐라클은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전년 대비 84% 급감한 16억원의 매출을 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각각 125억원과 148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악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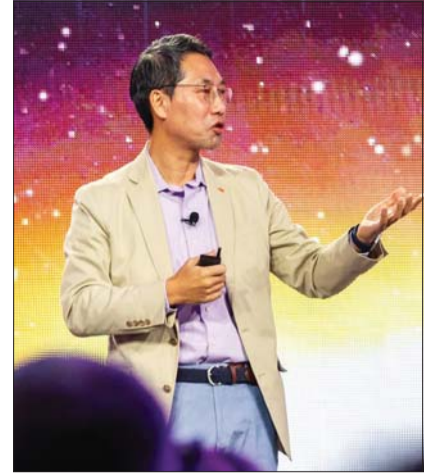
한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이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약개발이 당장의 성과가 없고 최종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FDA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계속 도전하는 과정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美 처방 확대"

내셔널 세일즈 미팅

이동훈 사장 "매출 확대 가속화"



지난 12일 미국에서 열린 '2025 내셔널 세일즈 미팅'에서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이 CEO 발표를 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지난 10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5 내셔널 세일즈 미팅'에서 미국 내 영업 조직망을 중심으로 한 기업 비전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는 현지 임직원 약 170여 명과 향후 목표와 전략을 세웠다. 영업 조직의 동기 부여, 효과적인 영업법 탐색, 실천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처방의사와 환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고객 정보를 분석하기도 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 성과를 거두며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 단일 매출만으로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4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SK바이오팜은 올해 경증 환자에게도 세노바메이트가 조기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 환자군을 확대한다는 방침

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광고(DTC)도 전개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지난 한 해, 뛰어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SK바이오팜은 현재 탄탄한 매출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에서 있다. 이제 우리는 매출 확대를 가속화하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 내셔널 세일즈 미팅'은 올해 6회째를 맞이했고 SK바이오팜은 향후에도 미국 내 직판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엡토즈마 SC 제형' 식약처 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치료 옵션 확대로 시장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엡토라' 바이오시밀러 '엡토즈마'의 피하주사(SC) 제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엡토즈마 SC 제형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해 류마티스 관절염(RA) 적응증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날 셀트리온은 엡토즈마 IV 제형의 80mg/4ml 용량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으며 이미 허가 받은 200mg/10ml, 400mg/20ml 용량까지 합쳐 오리지널 제품이 보유한 IV 제형의 모든 용량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엡토즈마의 SC 제형을 추가하고 IV 제형의 추가 용량까지 확

보하면서 치료 옵션이 확대돼 시장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엡토즈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약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26억4500만 프랑(약 4조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엡토즈마 IV 제형과 SC 제형에 대해 모두 허가를 획득해 자가면역질환 포스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며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5종의 제품 간 시너지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허가 및 상업화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지엔티파마, '제다큐어' 글로벌 시장 공략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신약)

장기투약 효능·안전성 확보
日·대만 등 연내 출시 목표



리뉴얼된 '제다큐어'

반려견 치매 치료제로 잘 알려진 '제다큐어'가 장기 투약에도 부작용이 없고, 장애개선 효과는 더욱 확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신약 '제다큐어'가 시판 후 조사에서 장기복용 약효와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내 판매처 다각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종표적 뇌세포 보호 신약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내 동물병원 2000여곳에서 처방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제다큐어의 장기복용 약효와 새로운 적응증이 밝혀지고 있다. 시판 후 조사는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재검증하는 절차이다.

40여개 동물병원에서 진행된 시판 후 조사결과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초기, 중기, 말기 반려견에 제다큐어를 6개월 이상 투여해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며 장애개선 효과가 확연하게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지수(CDDR) 평가(50점 이상이면 인지기능장애)에서 초기, 중기의 경우 8주만에 대부분 50점 이하로 감소했으며 말기인 경우에도 장기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5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송정동물의료센터 고진 원장은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 제다큐어를 6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 시 안전성과 증상 개선이 확인됐다"며 "특히 밤에 더 잠을 잘 자고, 대소변 실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 동물사업본부 이진환 본부장은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 단계의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들이 8주에 비해 24주 장기복용했을 때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이 더욱 확연하게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에서 제다큐어의 새로운 적응증도 계속 밝혀지고 있다. 제주대학

교 수의과대학 송우진 교수는 반려견 뇌수막염에서 확인된 제다큐어의 약효를 최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FAVA)에서 발표했다. 또한 제다큐어를 복용한 노령견에서 관절통증이 줄었으며 연골이형성으로 관절통증이 나타나는 반려묘에서도 통증 및 염증 감소효과가 확인됐다.

지엔티파마는 국내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제다큐어의 유통망을 기존 한국수의사회 자회사인 한수약품에서 대웅팜, 서울수의약품, 인투바이오, 우리엔팜 등 5개사로 확대했다. 또한 제다큐어의 생체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약물 성분을 조정하고 단상자 모양을 변경한 리뉴얼 제품도 출시한다.

제다큐어의 해외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대만, 이탈리아 시장의 연내 출시를 위해 해당 지역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상위 10위안에 있는 4개 동물용의약품 회사와 연내 완료를 목표로 라이선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엔티파마 광병주 대표이사는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실사용데이터와 실사용증거 등을 확인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다큐어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한국 고가구전' 전시

전통의 아름다움·가치 조명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가 오는 20~22일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 마을에 위치한 노스텔지어 블루재에서 '한국 고가구전' 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고가구를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닫이'와 강화, 밀양, 나주 등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고가구

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한 설화수 '진설크림'을 소개하며 정통 문화유산을 재해석해 보는 경험도 제공한다.

설화수는 오는 14일까지 설화수 홈페이지에서 노스텔지어 한옥호텔과 북촌 설화수의 집을 잇는 '프라이빗 도슨트 투어' 참가 신청도 받는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은 2월 21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청하 기자



(tok tok)



©후카후카스튜디오의 스마트톡 시리즈인 톡톡은 모두 수작업으로 마감한 제품입니다.
가장자리에 등글림 작업을 하여 사용 시 날카로움이나 거슬림 없이
조약돌처럼 매끈한 감촉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작 방법으로 거슬림을 없애고 입체감은 살린
후카후카스튜디오만의 특별한 톡톡을 만나보세요.

HOOKKA
HOOKKA
STUDIO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CJ그룹,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올림픽 여정 뒷받침

‘꿈지기 철학’ 바탕으로 유망주 후원 동계올림픽 등 지속적 지원 약속

김민선을 포함한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CJ그룹(이하 CJ)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은 CJ의 후원에 힘입어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12개의 메달(금3, 은5, 동4)을 획득했다. 김민선과 이나현은 각각 여자 500m와 100m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황금 시대를 이끌었다. 특히 CJ의 개인 후원을 받는 김민선은 팀 스프린트 금메달을 거두고 여자 100m에서는 은메달까지 목에 걸며 금2, 은1개를 기록, 올림픽 메달 획득에 청신호를 알렸다.

CJ는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하얼빈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6 동계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김민선을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과에 감사 드린다”며 “CJ는 선수들이 다가오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J는 ‘꿈지기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No.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망

주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동계 스포츠에서도 큰 발자취를 남긴 CJ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윤성빈과 이상호의 성공을 뒷받침한 후원자였다. 이제 CJ는 김민선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후원을 통해 다시 한번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CJ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에 대한 후원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자 선수들이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으로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CJ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B국민은행-POBA, 주거대출 은행 협약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POBA)와 주거대출 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금집행 및 입출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김장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왼쪽),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에스오일, 韓-아랍 청년교류 지원

에스오일은 15일까지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대학생 14명을 선발하여 9일 동안 사우디 및 UAE 방문을 진행한다. 선발된 한국 대학생들은 리야드, 아부다비, 두바이의 관광명소들을 방문하며 아랍 문화를 체험한다.

/에스오일



현대위아는 13일 복지기관 10곳에 차량을 기증했다. (왼쪽부터)공효진 배우, 마산합포도인종합 복지관 조성환 관장, 사랑의밥차 김옥란 이사장,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기철 회장, 현대위아 정재욱 사장,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이영호 협회장이 12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현대위아 본사에서 열린 ‘드림카 기증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위아, 10개 복지기관에 ‘드림카’ 전달

배우 공효진 등 행사 참여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해 마련한 기금으로 복지기관 10곳에 차량을 기증했다. 현대위아는 13일 경남 창원특례시 ‘다음 장애인보조작업장’ 등 전국 10개 복지기관에 현대위아 드림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가 2013년부터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한 차량은 올해로 총 180대에 달한다.

이번 지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1% 기적’을 통해 조성

됐다. 임직원들이 월급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추가 출연한 약 5억원으로 차량을 마련했다. 현대위아는 차량이 없거나 오래된 차량을 보유한 복지기관에 차량을 선물했다. 서울 용산구 사랑의밥차에는 3.5톤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밥차를 제공했다. 창원의 다음 장애인보조작업장에는 근로 장애인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현대스타리아 차량을 전달했다. 특히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배우 공효진씨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3 | 해질 / 18:10

2월 14일 (금)
음력 : 1월 17일

수도권 날씨 **-2 ~ 1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S&P글로벌 지속가능성평가

LG전자, 2년 연속 ‘톱 1%’ 경영

고객관계, 지배구조 등 고평가

LG전자(대표이사 사장 조주완·사진)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2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톱(Top) 1%’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분석을 종합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산업군에 따라 톱 1%, 5%, 10%로 구분해 발표한다. 이번 평가는 62개 산업군 76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LG전자는 올해 ‘가전 및 여가용품’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77점을 획득했다. 환경 평가에서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

리, 에너지 사용, 기후전략 등의 부문에서, 사회평가에서는 인권 및 공급관리, 고객관계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배구조 평가에서는 투명성 및 보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각 산업군별 톱 1%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66개이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전자를 포함해 3곳이 톱 1% 평가를 받았다.

한편 LG전자는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풀무원, 글로벌 식품기업 ‘톱 4’ 차지

지속가능경영 역량 입증

풀무원(총괄 CEO 이우봉·사진)이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CSA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기업 Top 5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풀무원은 국내 식품사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글로벌 식품기업 중 4위를 달성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풀무원은 경제·거버넌스, 환경,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대성 평가 등 비재무 이슈 관리, 에너지 및 환경 정



책 강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 개발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했다.

풀무원은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핵심 ESG 아젠다를 선정·관리하고, 이를 기업 경영 목표 및 경영진 보상과 연계함으로써 탁월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에는 내부적으로 ESG 이슈의 경영 내재화를 강화하고자 중대성 평가 방식을 고도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원선 기자

아산나눔재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참가 스타트업 모집

아산나눔재단이 ‘20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참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현대그룹 창업자 ‘아산 정주영’ 어록의 ‘개척’을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글로벌 트랙 ▲다양성 트랙 ▲기후테크 트랙 ▲에비창업 트랙 등 총 4개 전형으로 개편되면서 트랙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신설된 각 트랙은 아산나눔재단이 기존에 운영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연계되고 창업팀 단계에 맞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 인사**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장 이법호
- 부음**
- ▲전경희 씨 별세, 전기병·기성·기춘·기욱·기선 씨 부친상, 이태한·정국현·우영준 씨 장인상, 전애리·최보경 씨 시아버지상, 전지원(메트로신문 부동산부 기자)씨 조부상 =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실, 발인 15일. 02-2262-4800
 - ▲정병익 씨 별세, 이형진·용혁(메리츠캐피탈 상무)·진·광미씨 모친상, 이은주씨 시모상, 명승우씨 장모상 = 13일, 홍익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5시. 02-2600-1443
 - ▲황용주 씨 별세, 황의철·황의정·황의선 씨 부친상, 황의혁(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본부장) 씨 숙부상, 김승일(아주물류대표)·기세일(메트로치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 13일 가톨릭학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031-249-8444

©Toytron, Sunwoo&Company All rights reserved.



내동생은 천하무적

뮤지컬

반짝반짝 달님이

2025.02.07(금) ~ 03.02(일) 서울 상상나라극장

주최 | 이지기획 SUNWOO & COMPANY 제작 | BLUE MON STUDIOS 주식회사 지키페 홍보마케팅 | EJOY COMPANY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위기의 건설사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정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치싸움,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꼬집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야속함이 묻어났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3년 1.5%에서 지난해 -2.7%를 나타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약 1.2% 감소하면서 300조 원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올 건설시장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올해 ‘보릿고개’를 걱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는 건설경기 침체에 대비해 재무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내실경영을 통해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투자를 꺼린다. 수익 규모를 꼼꼼

하게 따져 수수 경쟁도 자제하고 있다.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만큼 수성에 집중하고 끝이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중견·중소 건설사다. 부도 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건설 공사비가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다. 비용 상승은 재무제표에 반영돼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비용상승 부담이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공사 비용 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을 기록했다. 공사 비용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11월 지수(100.97)와 비교하면 29.0%나 상승한 셈이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 비용에 생산자물가 지수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수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도 겹쳐지고 있다. 미분양아파트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년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기준 2만1480가구다. 전월 대비 1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

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 건설사는 문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 건설연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에 달한다.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이들 기업 중 86.2%(25곳)가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

시장이 살아나야 기업도 회생한다. 정부가 건설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건설투자는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높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향후 건설투자가 5조원 확대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5만4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 생산 효과는 5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건설투자 확대 방안은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이 꼽힌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최대 적도 ‘불확실성’이다. 안개가 걷혀야 앞으로 나아간다. 탄핵정국 마무리와 건설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김용·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헌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기지 수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나오자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다만, 개헌론자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이들은 드물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부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와 탄핵심판으로 불리한 구도를 개헌론으로 돌파해보자는 의도가 짙고, 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야당의 개헌론은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흔들려보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졌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돌아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극우 유투버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경도돼 ‘협치’보다는 밀실에서 군인들과 술을 마시며 폭력을 동반한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당국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당이 참패하고도 정책 기초를 바꾸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태군 게이트가 터지자 돌연 계엄을 선포해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던 ‘1호 영업사원’이 부정선거론 설파하고 중국을 타자화해 이념 논쟁을 벌여 거리의 극우에 힘을 실어줬다. 전세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자랑한 국격이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함께 무너졌다.

개헌론은 시기상조다.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여야가 국정협업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살인 민생입법과 연금개혁, 의정갈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에 손을 대야 한다. 군이 개헌을 하자면 극한의 갈등의 토대를 제공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협치 기반을 만들 필요는 있다.

/pth7285@

오늘의 운세 2월 14일 (음 1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라. 48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게 되니 서운해 마라. 72년생 때를 놓쳐 열혈날 잔치에 열하듯 날뽕 친다. 84년생 음악회가 있으니 열심히 연습하도록.
- 소** 37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원망하지 마라. 49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61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7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마무리. 85년생 휴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 호랑이** 38년생 자손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 50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니는 격. 62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4년생 고기는 씹어맛이 좋고, 말은 해아 맛인데. 86년생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운이 좋다.
- 토끼** 39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51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 6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라. 75년생 우울한 마음을 도서관에 가서 독서로 달랠. 87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 용** 40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52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64년생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76년생 몇 달 전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시원. 88년생 유래 통쾌 상쾌한 하루.
- 뱀** 41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 53년생 경험 부족으로 이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65년생 뒤늦게 가정불화로 관계수가 따른다. 77년생 발상을 전환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라. 89년생 차가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 말**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54년생 주변에 부당은 주지 마라. 66년생 자녀들이 나의 가장 큰 협력자. 78년생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내 실력 부족. 90년생 기다리면 곳에서 소식이 온다.
- 양** 43년생 애정 문제는 당분간 삼각관계를 조려한다. 55년생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이 이룬다. 6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79년생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91년생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 원숭이** 44년생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기울이자. 56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68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든 참여. 80년생 티끌을 모다 보면 태산이 될 수도. 9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저지니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 닭** 45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7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 69년생 부러지더라도 굴하지는 마라. 81년생 꾸밀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만족하라. 93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 개** 4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58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70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경계. 82년생 물건을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했으니. 94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다시 도전해야.
- 돼지** 4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59년생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83년생 투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95년생 친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니 경청하는 것도 좋을 듯.



김상회의四季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첨단과학 시대에도 사주학을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명리학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큰 재산을 손에 넣은 사람일수록 사주학을 소중히 한다. 그들은 운명론을 말하는데 자기가 살면서 겪은 일이나 결과를 운명적이라고 여긴다. 좋은 운세가 자기를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이 저마다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주는 그러한 운명을 보여주고 타고난 길을 알려 준다고 믿는다.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다. 사람의 일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머리 좋고 남보다 능력 뛰어난 사람이 모두 성공할 것 같지만, 남보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성공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런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운세다.

좋은 운세를 누구나 바라지만 누구나 좋은 운세를 만나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질주하지 않고 때때로 멈춰서서 상황을 돌아본다. 그렇게 멈춰서서 어느 쪽 길로 갈 때 자기 운세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인지 가능해본다. 운세가 힘을 잃는 시기에는 어떻게 좋은 운세를 끌어올 것인지 수시로 고민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다. 운세도 그렇다. 스스로 준비하고 좋은 운을 맞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세가 열린다. 좋은 운세는 준비된 사람을 귀신처럼 찾아낸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감나무를 흔드는 사람이 감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하다.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그만큼 애를 써야 한다. 좋은 운세를 끌어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볼 일이다. 좋은 운세는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경과학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드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2		8	5			
1							9	4
7								2
1			3	9	7			5
			5		2			
2			9	4	6			8
6								9
4	9							2
		2	1		9	7	4	

5				1	7		3	2
3				8		5		
	6			5				
4			9		5			
7	2	1				4	9	5
				7		2		4
					6			1
		3	7					6
6	9		3	4				7

9	7	2	6	8	1	2	9	8
8	2	1	9	8	9	2	6	7
6	2	8	1	2	7	9	8	9
8	9	8	9	7	6	1	2	2
1	9	7	2	1	9	6	8	8
9	8	9	2	6	8	7	2	1
2	1	6	7	9	8	8	9	1
7	6	2	9	2	8	1	9	1
2	8	9	8	1	2	9	7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1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뉴질랜드 리슬링의 발견 ‘셜드’... 화이트와인 맛집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7

“대박! 찾아서 지금 당장 마셔야해 (Boom! Find it, Drink now).”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뉴질랜드 와인 ‘셜드 리슬링’에 대해 95점의 높은 점수를 줬다. 고개가 갸웃해진다. 뉴질랜드의 화이트 와인의 대표주자인 소비뇽 블랑이 아닌 리슬링 품종에다 생산지는 넬슨, 와이너리 셸드도 낯설다.

먼저 넬슨 지역이 어디인지 보자.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으로 이뤄져 있다. 화이트 와인 산지는 보통 남섬이라고 보편된다. 넬슨은 말보로와 함께 남섬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 지형적으로 강한 바람은 피하고, 바다와 가까워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가 이어진다. 우



셜드의 와인메이커 트루디 셸드.

리나라에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넬슨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기후 덕분에 말보로와 함께 좋은 화이트 와인 산지로 꼽는 곳이다.

다음은 와이너리 셸드다. 넬슨 지역



(왼쪽부터)셜드 리슬링, 셸드 소비뇽 블랑. /니혼슈코리아

을 대표했던 여성 와인 메이커 트루디 셸드가 판매·마케팅에 능동했던 블레어 길스와 손을 잡고 세운 곳이다.

트루디는 프랑스 알자스나 이탈리아 트라민 등에서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

인에 대한 경험을 쌓고, 넬슨에서는 와이메아 에스테이트에서 수석 와인메이커로 와인 생산을 총괄했다.

화이트와인에 대한 트루디의 자신감은 셸드에 그대로 반영됐다. 넬슨 테루아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비뇽 블랑과 리슬링, 사르도네, 알바리노, 피노그리까지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 스타일을 구축했다.

‘셜드 리슬링’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맛을 보았다면 독일 리슬링으로 여길 뻔했다. 제임스 서클링 역시 독일에서 유명한 리슬링 산지인 자르(Saar)를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 전형적인 리슬링 특징과 함께 집중력 있는 미네랄 느낌이다. 산미는 살아있지만 날카롭지 않아 화이트와인이 부담스러웠던 이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트루디는 “새벽,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수확했으며, 운반 중에도 포도즙과 껍질이 접촉해 풍미를 더 강하게 했다”며 “독일 리슬링에서 유래한 효모로 발효해 신선한 과일 향과 전형적

인 리슬링 캐릭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셜드 소비뇽 블랑’은 잔에 따라자마자 아로마가 코를 사로잡는다. 와이메아 평원의 서로 다른 포도밭에서 수확된 포도를 섞어 다양한 향과 풍미를 만들어냈다. 기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과 비교하면 좀 더 온화한 기후에서 잘 익은 소비뇽 블랑을 떠올리면 된다. 신선하지만 산미는 날카롭지 않고, 감귤류에 열대과일의 향과 함께 미네랄 느낌이 매력적이다.

‘셜드 사르도네’는 밝은 황금빛을 띠며, 개성 있는 과일 향과 오크 숙성에서 오는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질감과 섬세한 산미가 긴 여운을 남긴다.

어느 품종을 골라도 합격점을 받을 화이트 와인 맛집인데 셸드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이다. 현지 미화 15달러 안팎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3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빙속·설상 ‘메달행진’... 종합 2위 굳힌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서 총 12개 메달 획득 이승훈,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 스노보드 김건희, 깜짝 금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7일(14일)째인 한국은 금 13, 은 14, 동 13개로 메달 합계 40개(13일 기준)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국의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한국은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다량 확보한 가운데 스피드스케이팅도 하얼빈에 태극기를 꽂았다. 목표했던 금메달 2개를 넘어 3개를 땀고, 은메달 5개와 동메달 4개를 더해 총 12개를 획득했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m를 제패한 이나현(한국체대)은 여자 500m 은메달, 여자 1000m 동메달을 더해 이번 대회 금, 은, 동을 모두 수확했다. ‘간판’ 김민선(의정부시청)은 여자 500m 금메달, 100m 은메달을 목에 걸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김민선과 이나현은 김민지(화성시청)와 함께 여자 팀 스프린트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팀 추월에 나선 ‘베테랑’ 이승훈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9번째 동계아시안게임 메달을 거머쥐며 한국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보유자로 우뚝 섰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세대교체를 알리는 어린 신성 선수들의

2025 하얼빈 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현황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32	26	24
2	대한민국	13	14	13
3	일본	9	9	13
4	카자흐스탄	3	8	6
5	우즈베키스탄	1	0	0
6	북한	0	1	0
7	대만	0	0	1
7	태국	0	0	1

*13일 기준 자료/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활약이 컸다. 제2의 이상화’로 떠오른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신성 이나현(한국체대)은 여자 100m에서 선배 김민선(의정부시청)을 0.004초 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계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신예라는 점에서 차세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김채연은 첫 동계아시안게임 무대에서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을 받았다. 김채연은 12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9.82점, 예술점수 32.06점을 합해 71.88점을 받았다. 이날 김채연의 점수는 2023년 2월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공인 쇼트프로그램 개인 최고점인 71.39점

보다 0.49점 높았다. 한국 여자 싱글의 간판으로 떠오른 김채연은 첫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이다.

남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13일 김건희(시흥매화고)는 악천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행운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만 17세가 채 되지 않은 김건희는 중국 하얼빈 인근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 78점으로 1위를 확정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스노보드 간판 이재운(수리고)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을 노렸지만 예선 43.75점을 기록, 12명의 선수 중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6개 종목에서 금 2개, 동 3개를 차지했다.

한국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에 나선 고은정(전북체육회),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전남체육회), 아베마리아, 정주미(이상 포천시청)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계주 은메달을 획득했다. 13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중국 하얼빈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여자 계주 4×6km에서 1시간 29분 27초 3에 들어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여자 7.5km 스프린트 금메달(압바꾸모바)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바이애슬론 메달을 땀다.

금메달은 중국(1시간 29분 6초 3), 동메달은 카자흐스탄(1시간 30분 1초 9)이 차지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독창적인 독해로 읽는 12개 회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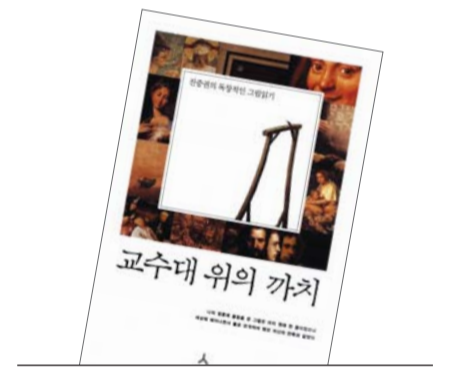
웹서핑을 하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모나미 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변화가를 찍은 사진 속 남성 중 약 97% 이상이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다. 글쓴이는 그들의 클론(복제) 패션을 ‘모나미 펜’에 빗대 회화화한 것이었다.

무심코 옷장에 걸린 옷을 입고 둘러나갔다가 사진이 찍혀 ‘모나미 펜’이라고 놀림당하지 않으려면 수용 미학에서 강조하는 ‘창조적 독해력’을 갖춰야 한다.

‘교수대 위의 까치’를 쓴 미학자 진중권은 “작품을 스스로 읽는다는 것은, 작품을 보며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품은 제작된 순간에 완성되는 죽은 ‘물건’이 아닌 끝없는 물음과 답변의 놀이를 통해 영원히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생물’이다”고 말한다.

미학자 진중권이 집필한 ‘교수대 위의 까치’는 프라 안젤리코의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알브레히트 뒤러의 ‘책을 삼키는 요한’,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신중함의 알레고리’ 등 12개 회화 작품을 작가가 어떻게 독해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여기에 모인 글들은 독자들을 대신해 그림을 읽어주기 위한 게 아니다”며 “뱀레적 성격의 이 책은 독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독해의 요청, 다시 말해 ‘그림을 이처럼 읽어 보라’거나 ‘이와는 다른 식으로 읽어보



교수대 위의 까치
진중권 지음/휴머니스트

라’는 채근에 가깝다”고 밝힌다. 요하네스 고프의 ‘자화상’을 다룬 부분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고프는 관객에게 등을 돌려 얼굴을 감추고는 화폭 위에 거울에 비친 ‘영상’과 캔버스에 그려진 ‘모상’만 남긴다.

진중권은 “화가가 등을 돌려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춤으로써 반영과 재현의 제재가 아예 사라지면서 남은 건 ‘복제’와 ‘복제의 복제’라며 “이는 ‘원본 없는 복제’라는 ‘시물라르크’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거울 속의 내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외면할 때, 거울 속의 나는 독립적인 인격이 된다. 모델과 상관없이 제의지를 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재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뒤통수를 보이는 저 머리인가, 거울 속 얼굴인가, 그것도 아니면 캔버스 위의 얼굴인가. 책의 물음에 당신은 뭐라 답하겠는가. 288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美 국방, 3월 하순 방일 조율... 미일 국방 회담” /사진 뉴시스
▲사실상 푸틴 요구 들어준 트럼프?...급물살 타는 우크라 종전 시계

▲태국·미얀마 접경 범죄 조직에 억류된 261명 구조
▲모디 인 총리 방미,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방어에 성공할까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 해체, 강풍으로 14일 이후로 연기
▲대만 타이중 백화점서 폭발사고...1명 사망·10명 부상



아워홈
새 경영체제서
고용안정 보장
너



Life

CJ그룹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후원
L4



‘교복패딩’ 유행 넘어, 열풍 이끈 ‘패션 아이콘’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노스페이스 ‘눅시’

한때 교복 위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던 노스페이스 ‘눅시 다운 재킷’. 지난 2000년대 중반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등골 브레이크’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이 패딩은 단순한 방한복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교복과 함께한 모습이 만화에도 등장할 만큼 시대적 아이콘이 된 ‘눅시 다운 재킷’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메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탄생한 ‘눅시’, 스트리트 패션으로 진화하다

노스페이스의 ‘눅시 다운 재킷’은 1992년 처음 출시됐다. ‘눅시’라는 이름은 히말라야의 눅체(Nuptse) 산에서 유래했으며, 본래는 등반기들을 위한 고기능성 등산복으로 제작됐다. 뛰어난 보온성과 가벼운 착용감, 특유의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스트리트 패션과 결합하면서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 런던, 도쿄 등지에서 힙합 아티스트와 스케이더들이 ‘눅시’ 특유의 실루엣을 스타일링에 활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1992년 고기능성 등산복 ‘눅시’ 첫 출시
뉴욕·런던 등 힙합 스트리트 패션으로 인기
방한성·볼륨감에 학교서 유행 일으켜

◆한국을 강타한 ‘눅시 열풍’

노스페이스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7년이다. 영원무역홀딩스의 자회사 ‘골드윈코리아(현 영원아웃도어)’가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획득하면서부터다.

등산복으로 출시됐지만 방한성과 가벼운 착용감,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며 유행을 주도했다. 특히, 2010년대 초반에는 ‘제2의 교복’으로 불릴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아이템이 됐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등골 브레이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나 ‘교복 패딩’, ‘국민 패딩’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적인 인기를 이어왔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또다시 변화한 ‘눅시’

그러다 ‘눅시’ 제품군은 또다시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만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노스페이스 역시 기존의 디자인을 유

지하면서도 더 다양한 컬러와 스타일을 추가하며 변화하는 소비 흐름에 대응했다.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2024 눅시 다운 컬렉션’을 출시하며, 역대 최다인 30개 이상의 스타일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트렌디한 크롭 기장을 적용한 ‘여성용 노벨티 눅시 다운 재킷’이 있다. 기존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광택 소재의 핑크, 바이올렛, 크림 등 다양한 색상 옵션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 30여개 ‘눅시 다운 컬렉션’ 선봬
광택소재, 다양한 색상 옵션 등 폭 넓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2년 연속 ‘1위’

실용적인 소비 트렌드도 ‘눅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콘셉트 아래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족(YONO, 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후드 탈부착 기능을 갖춘 ‘여성용 노벨티 눅시 디테처블 다운 재킷’이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크림, 블랙, 브라운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됐다.

◆브랜드 가치 입증… 12년 연속 대한민국 1위

한편,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온 노스페이스는 브랜드스타이 발표한 ‘2024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12년 연속 패션 부문 1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타이 국내 230여 개 산업 부문의 대표 브랜드 1000여 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브랜드 가치 순위다. 브랜드스타이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산출된 브랜드주가지수(70%)와 소비자 조사 결과(30%)를 반영한 ‘BSTI’ 점수를 기반으로 매년 선정된다.

브랜드 평판 1위로 선정된 배경으로는 신제품 출시 외에도 국내 아웃도어·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주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노스페이스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팀 코리아 공식 단복’을 제작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파리올림픽 공식 시상용 단복을 포함한 총 23개 품목을 지원했다.

성가은 영원아웃도어 사장은 “앞으로도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객께서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더 많은 국민분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아웃도어·스포츠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호날두, 지난해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1위… 3771억원 벌어
▲‘찰스3세’ 국왕 만난 손흥민 “토티넘 팀 어렵지만 노력중”
/사진 뉴시스

▲2034 사우디 월드컵, 전면 금주 예고 “술 없이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
▲리버풀과 에버턴, ‘머지사이드 더비’ 무승부… 경기 종료 후 ‘난투극’

▲‘20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금메달 획득
▲현정화·유남규, 대한탁구협회 새 집행부 부회장 내정